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일 자 Ⅱ 2016. 9. 22(목) ~ 23(금)

장 소 Ⅱ 충남 아산 (주)교원구몬 도고연수원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 페미니즘 - 이어달리기

 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E-mai womenfund@womenfund.or.kr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일 자 || 2016. 9. 22(목)~23(금)

장 소 || 충남 아산 (주)교원구몬 도고연수원

2016 여성회의

: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여성회의'가
2011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됩니다.

2016년, 여성혐오가 노골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서 행동하는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들'과 함께
성차별 현실과 여성주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6 여성회의는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들,
견고한 성차별 현실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을 고민해온 활동가들,
각각의 삶터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며 사는 다양한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관심 있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세대를 넘어, 일상의 생활현장을 넘어
따로 또 같이, 같이 또 따로...
페미니즘 운동의 연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9월 22일(목)

11:00~11:30 등록
11:30~12:30 점심식사

12:30~14:30 **여는 순서**
사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개회 인사 : 이해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는 강연

1. 2016년 한국사회, 그리고 페미니즘의 도전

강연 :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2. 여성혐오, 페미니즘 물결로 맞서다

강연 : 정희진 여성학 강사

14:30~17:00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사회 : 손희정

1. 페미니즘, 새로운 물결이 일다

발표 : 페미당당, 페미디아, 불꽃페미액션,
강남역10번출구, 부산페미네트워크

2. 여성운동 특특: Herstory 이해를 위한 대화

패널 : 심미섭, 용운신, 김신현경, 난새, 김신효정

17:00~18:30 **분과토론: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1분과 젠더폭력 /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2분과 여성노동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3분과 여성정치세력화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4분과 여성주의 문화운동 / 이유진 문화기획달 대표

5분과 생태주의와 여성 /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6분과 퀴어 페미니즘 / 난새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 18:30~21:00 저녁식사 및 분과토론 지속
- 21:30~23:10 **영화상영 및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
영화 : 페미니스트 정당 창당기

9월 23일(금)

- 07:00~08:30 아침식사
- 09:30~11:00 **분과토론 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 문제의식 공유 및 연대를 통한 확산전략
사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발표 : 분과별 패널발표
종합토론
- 11:00~12:30 **마무리 Statements 100인 선언** : 2018년을 향하여
사회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12:30~13:30 점심식사

목차

□ 여는 강연

2016년 한국사회, 그리고 페미니즘의 도전	13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디지털 인간의 등장과 양성평등론의 문제-미디어, 혐오, 여성운동	23
정희진 여성학 강사	

□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강남역10번출구	35
부산페미네트워크	39
불꽃페미액션	40
페미당당	44
페미디아	47

□ 분과토론: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1분과 젠더폭력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51
김홍미리 / 바람 / 송란희	
2분과 여성노동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65
권박미숙 / 김미현 / 오은희 / 임혜숙	
3분과 여성정치세력화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75
김은희 / 곽빛나 / 류은숙	
4분과 여성주의 문화운동 (달리 문화기획달 대표)	89
달리 / 김신현경 / 류희선	

5분과 생태주의와 여성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96
장이정수 / 김신효정	

6분과 퀴어 페미니즘 (난새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110
더지	

□ 부록

분과별 참가자 명단	119
참가자 명단	125

여는 강연

- 2016년 한국사회, 그리고 페미니즘의 도전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 디지털 인간의 등장과 양성평등론의 문제 - 미디어, 혐오, 여성운동
정희진 여성학 강사

여는 강연

2016 한국사회, 그리고 페미니즘의 도전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2015년은 여성혐오가 노골화된 한 해였다. TV 지상파, 종편 방송에서부터 인터넷, 웹, 앱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미디어 소통 구조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 조롱, 위협이 난무했다. 여성혐오 언어를 대중화시킨 것은 일베다. 2013년 ‘일베’ 현상은 ‘모든 사회적인 것에 대한 조롱과 비하’를 통해 공동체나 공공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화된 여성 혐오는 종편을 비롯한 각종 오락프로그램 및 토크쇼를 통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혐오가 자연스런 소재로 널리 확산된 데 기인한다. 사실 여성 혐오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 한국 가부장제 남성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위치론’은 그들의 먼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이에 숨죽이고 협력해 온 그들의 어머니들에 의해 이어온 ‘신앙’이다. 한국 여성은 본질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여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여성에게 ‘네 자리를 찾아주겠다’는 훈육의 의지를 실천해 온 것이 한국의 ‘남성다움’이었다. 무엇보다 ‘유아적 남근주의’의 시간성과 여성의 시간성은 동시적일 수 없다는 데서 ‘비극’은 강화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나르시시즘적 남근주의를 신봉하는 ‘유아적 남성’과 공존하는 여성성의 ‘나약성’에 대해, 전자는 법 또는 욕망이라는 모든 기표에 대한 환상/실망의 연속성이고, 후자는 자신의 존재를 자기 아이의 존재에 위임하고 자기 아이의 완벽성이 훼손될 때마다 거세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 표현한다(222쪽).¹⁾ 한국 같은 부권제 가족제도와 비공식적 자궁가족 안에서 성장한 남성들의 경우 과도한 권력과 어머니(여성)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사이에서 연령, 행동, 의식, 성숙도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존재다. 특히 ‘섹슈얼’한 문제는 국가, 자본, 가족, 조직, 종교 모든 영역에서 유아적 남근주의를 기초로 한 거대한 자본-성욕의 회로망을 만들어내면서 확장해왔다.

페미니즘 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의 ‘고통스런 운명’을 양성적 정신

1) 줄리아 크리스테바, 유복렬 옮김 (1998),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정신분석의 힘과 한계. 서울: 푸른숲.

세계를 통해, 혹은 법과 국가를 상대하는 집단주의적 민권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정신분석학적인 문제’를 ‘이성적 고매함’으로 해결하려 하니,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구제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의 자율성과 의식의 투명성을 확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법’이나 ‘국가’와 협상을 벌이거나, 이를 일부 개조하면서 소위 민주주의의 상징인 인권이나 사회 정의의 영역 안에 여성의 아젠다를 기입하는 방식의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화도 사라져 버린 2016년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도전은 무엇일까? 또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학습해 온 페미니스트 간에는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

2015년 여름을 강타한 ‘메갈리아’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 축을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 운운하는 한줌의 여성들을 ‘꼴통페미니스트’(꼴뻔)으로 비하하고 겁주면, 그런 대로 반역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응징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페미니즘은 평범한 여성들의 자기규정의 일부이고, 성평등은 여성과 일부 남성이 선택해야 할 생존의 자구책이 되고 있다. 물론 서구 페미니즘 운동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페미니즘 운동은 “한걸음의 진보와 두 걸음의 후퇴(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ward)”를 겪는다. 항상 일관적으로 진보적인 경로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매일 수렁해가던 가부장적 배당금을 포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은 항상 반동적인 안티-페미니즘으로 공격을 받았고, 더 낙후된 형태의 남녀관계로의 퇴행적 경로를 밟기도 한다. 그러나 도촬, 몰카, 소라넷, 성폭력, 혐오살인이 자연스런 본능, 문화콘텐츠, 표현의 자유, 정신질환 증상으로 언어화되는 ‘글로벌 코리아’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나는 ‘혐오’의 역사를 버티온 시니어 페미니스트로서, ‘적진 안에서’ 적의 언어로 적을 공략하는 영 페미니스트들의 출현에 흥분한다. ‘메갈리아’ 이후의 젠더 관계는 확실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다.

적의 언어로 적을 치는 ‘메갈리아(메겔)’의 등장

인간이 아닌 ‘충’으로 호명되는 한국 여성들은 이제 인터넷, 웹기술에 대한 접근도 면에서 남성과 격차가 없다. ‘신종 무기’를 제대로 탑재한 셈이다. 2015년 여름

을 강타한 ‘메갈리아’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 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서 놀던 세대이며, 다양한 팬 활동을 통해 ‘빠른 조직화’와 ‘자본, 문화자원 동원 능력’을 학습한 세대다. ‘메갈리아’는 미러링(mirroring)이란 전술로 젠더 전복을 수행한다. 남성들이 여자들에게 가하던 성역할 고정관념, 혐오, 비하, 무시, 협박 등을 그대로 남성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당신의 후진성을 목격하라는 것이다. 이곳에는 남성들의 성기에 대한 희화화, 찌질하고 비열한 남성들에 대한 욕, 여성간의 연대를 통한 남성들에 대한 보복 등이 거침없이 표현된다. 젊은 여성들이 ‘끼리 문화’의 해방구로서 출발한 메깅은 헌신적인 참여자를 만들어내고, 성전쟁을 훑쳐보는 수많은 구경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뉴스와 언론, 학계 등에서도 여성혐오와 메갈리아 현상은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여러 논쟁과 노선 차이로 초기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위마드와 레디즘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강남 10번 출구 살인사건’으로 결집된 여성들은 그 선두에 있다. 일견 메갈리아 세대로 불릴 수 있는 소위 한국의 제 3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일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페미니스트들이다.²⁾ 그녀들은 여성혐오를 ‘남혐’이란 언어로 되돌려 줄만큼 강력한 맞대응을 해내고 있다. 메갈리아적 미러링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들은 이것이 페미니즘 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갖는다. 즉, ‘남성들의 공격성을 ’훑내 내는 것‘이 여성들에게 힘을 가져다주는것인지’에 대해 의문인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은 성,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 국적, 장애여부 등 좀 더 복잡해진 소수자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혐이란 구호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메갈리아를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성 안에서 사유해 볼 때, 이들은 가장 동시대적이며 가장 솔직한 여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구성해 온 수사학이 인식의 확장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것에 안주하여 행동하지 않은 엘리트들도 양산해냈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를 없애기 위해 적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적을 공격하는 이 전법은 기존의 페미니즘에서는 발견될 수 없었다. 여성 성기와 몸에 대한 평가, 욕망, 혐오를 독점해 온 가부장제 남성에게 남근은 애착과 권력의 상징물이다. 이 때문에 메갈리아의 남성 성기에 대한 ‘공론화’는 ‘맹목적’인 비하가 아닌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은 ‘피해자화’가 아닌 ‘익살스런 조롱꾼’의 퍼포먼스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면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순응하지 않고 ‘코르셋을 벗는’ 탈코르셋이라는 자기 고백 또한 전염 효과를 갖게

2) 글쓴이의 자의적 세대 구분임. 1세대는 ‘조직’ 운동을 통해 여성 세력화와 법제화를 이뤄낸 80년대, 90년대 세대, 여성학의 수혜를 받고, 평등주의 문화를 이뤄낸 90년대 중후반 영 페미니스트들을 2세대로, 그리고 여성혐오 10년의 암흑기 이후 메갈 세대를 3세대 페미니스트로 명명함.

된다. 위마드 등의 메갈 담론은 덜 과격한 다양한 여성 커뮤니티들에 게시되고, 언론사,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폭넓게 유포되면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고, ‘화력지원’의 방식으로 온라인/SNS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소라넷’ 폐지를 위해 진선미 위원을 후원하거나,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강남역 살인사건 애도 시위를 하고, ‘포스트 잇’ 프로젝트를 벌이며 온라인 담론과 오프라인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폐북과의 소송 비용을 위한 모금액으로 판매된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티셔츠는 모금목표의 10배가 넘는 1억원이 모였다.

나 같이 학자에서 출발한 페미니스트들은 지난 30년간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생존’하고 버티기 바빴다. 그럼에도 가부장적 언어나 행태들에 점유당하지 않는 고유한 여성주의적 전략으로 ‘새판 짜기’를 주장해왔다. 당연히 지극히 적은 수의 페미니스트들로 조직과 사회의 가치를 전환시키는 ‘새판을 짜는 것’은 불가능했고, 자주 실패했다. 우리는 남성중심적인 마초들의 언어가 ‘더러워서 피했고’ ‘겁나서 상종하지 않으려 했다’. 물론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서 ‘단독자 여성’으로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자리에도 많이 서 봤다. 결국 페미니스트로 자율성을 가지려 애쓰며 남성중심적 조직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가부장적 습성을 몸과 행동으로 거부하면서, ‘능력’과 성실함으로 조직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개인화된 전략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정규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남을 수 있었다. 반면 메갈리아 세대들은 가족, 일자리, 문화적 혐오, 사랑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이 남아 있지 않다는 위기감을 갖기에 적진에 들어간다. 메갈리아 세대의 운동은 성의 정치화란 측면에서 전 세대 ‘영페미니스트’ 운동과 문화적 맥을 같이 한다. ‘영페미니스트’는 말 그대로 기존의 여성 운동 그룹인 시니어 페미니스트(senior feminist)들과 운동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독자적인 문화 운동을 벌여나간 당시 신세대 페미니스트들을 상징하는 범주이다. 이들은 이미지와 스타일에 대한 ‘감각’을 체득한 신세대의 문화를 내재화하면서도, 섹슈얼리티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상시킨 ‘운동가’로서의 실천 의지를 강하게 견지해냈던 페미니스트들로서 ‘일상의 정치화’를 통한 변혁 운동을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주의 이론을 학습한 세대로 이들의 말은 섬세했고 소수자 감수성을 중히 여겼다.

3세대 메갈리아 세대들은 인터넷과 SNS라는 광활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면서 익명성이 제공하는 공격성을 적극 활용한다. 미러링 전법 등 일견 보복을 통한 조롱으로 시작했던 메갈리아 페미니즘 운동은 이제 거리의 시위로, 다양한 조직운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남성들이 ‘혐오’를 내뿜는 동안, 진보진영과 페미니즘 운동은 ‘착한’ 이라는 형용사가 주는 평화로움과 괜찮은 행위자들이 ‘도래’하리란 전망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착한~’ 운동은 시민 영역의 핵심

단어가 되었고, ‘나쁜 시민’과 대항하는 상상적 시민 연대를 구성하는 듯 했다. 그러나 ‘착한 남자’도 크게 늘지 않고, 국가도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혐오는 일베로 정점을 달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나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과격하면 곧 피해버리거나 의미 자체를 주지 않는 사회의 ‘안전한 습성’에 안주하면서 남성혐오를 양산하는데 기여했고, 또한 과격함과 센 언어로 스펙터클의 대상이 되면서 집행자가 되는 것이 결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겸손한 평등주의에 익숙하면서 인권이 필요한 혹은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좋은 현장들을 찾아다녔다.

메갈리아 세대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정동적 회로망’을 구성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담론은 메갈리아, 위마드, 레디즘 같은 발화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삼국카페 등 보다 온건한 여성 커뮤니티들에 내용이 흐르고, 각 여성들의 개인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에 접속되었다. 이렇게 감정과 지식, 정보의 회로망을 구축하면서 짧은 시간에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회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감정들과 정보들 덕분에 여성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구나, 이런 언어가 가능 하구나’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고, ‘눈팅’에서 ‘키보드 워리어’로서, ‘키보드 워리어’에서 ‘눈팅’으로, ‘개념녀’에서 ‘탈코르셋’으로 다양한 역할과 위치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16년의 페미니즘은 메갈리아나 위마드의 적극적 멤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확장된 회로망에서 구성되는 정서에 공감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와 영향력이 결정된다.

그러나 나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일단 SNS를 좋아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아 이 거대한 회로망을 눈팅하고 분석하는 수준에서만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욕이나 비속어에 익숙하지 않아 ‘창의적인’ 조롱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1세대 페미니스트, 2세대 페미니스트, 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의 지점을 제안해 본다.

페미니즘의 반격? 의제와 고민들

1) 익숙한 투쟁 vs. 직접행동네트워크

메갈리아 페미니스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고분 분투하는 투사들이다. 여성을 비정규직과 동일시하고, 여성을 성적대상물로만 폄하하는 나쁜 자본주의-국가에서 변한 것은 없다. 사실 이는 지난 30년간 이상 조직, 학계, 일터에 존재했던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공통된 조건이기도 하다. 변화한 것이 있다면, 여성들의 태도이다. 더 이상 안전할 곳도, 공정한 중재자로 없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일자리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평등한 대우를 이직을 통해 피하고, 다층적 차원의 ‘고갈’과 ‘소모’를 혼자 견디며 버티고 있다. 언어의 유희, 조롱, 창의적 변형을 통한 공모적 쾌락이 페미니즘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됨과 동시에 또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신상을 털고, 소송을 걸고, 협박한다. 메갈리아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 또한 공포와 분노다.³⁾ 메갈리아 페미니스트들 또한 보복을 통한 일건의 기쁨도 경험하지만, 미러링 전략 자체가 끊임없이 ‘여성혐오’의 언어와 협박들과 마주하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한다. 소라넷을 포함한 여성혐오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봐야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대 남성들의 유아적 남근주의의 바닥을 보게 되고, 남성 연대의 가공할만한 집단적 역량을 느끼게 되면서 공포와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서로 상담해주면서 ‘직접행동’이라는 정치를 벌여나가고 있다. 미러링은 용기를 가져야 가능한 게임이고, 이것이 개인적 대항이 아닌 이를 지지하고 재생산하는 집단적 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여성은 폭력적인 남자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기업과 국가에 의해 소송을 당하거나 정의당에 의해 ‘정의’를 빼앗길 수도 있다. 메갈리아 세대는 언어규범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법과 국가의 규범에 의해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결국 질문은 페미니즘이 국가, 특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이다. 페미니즘은 자율성의 전통을 옹호한다. 동시에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협상을 위해 공간에 들어가지만, 맹목적인 국가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중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0년대 대규모로 대학에 입성한 여성들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운동권 조직에서 활약했고, 이후 여성 단체를 만들어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 다양한 법제정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⁴⁾ 1990년대 이후의 조직 여성 운동은 더 이상 주변자의 정서로 머물러서는 운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적 주류화’로 국가를 선택했다. 타도 대상이었던 국가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한국 여성 모두를 한계 지우는 구조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 여성 운동이 취한 전략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자원 획득과 법제화, 새로운 정책의 집행이었고, 빠른 시간 내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다. 2008년 호주제 폐지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큰 전리품 중 하나였다. 이와 동시에 자율적인 여성 문화를 강조하는 ‘또하나의 문화’ 같은 단체들은 대안문화 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나 소통하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3) 시사IN, "'메갈리안'... 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2015년 9월 17일자.

4) 조주현(1996),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 1: 138-177. 153쪽.

도달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국가’나 ‘법’에서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법’은 없지만, ‘조처’만 있는 사회를 만든다. 즉 금기나 권력 대신 모든 사람들을 진압하고 정상화하는 규율적이고 행정적인 해결책만 늘이는 ‘정상화하고 왜곡하는 질서(크리스테바 24-26)’를 강화하고, 자본의 세계적 유통을 위한 관리자 역할만을 수행하려고 한다(버틀러 & 스피박)⁵⁾. 재앙상황에 빠진 국민의 삶 권리를 경제 활성화라는 추상적 가치를 앞세워 박탈하거나, 특정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혹은 아예 말을 걸지 않는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보 담론과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국가가 휘두르는 공포감 조성전술이 활발할수록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위축된 개인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일베는 광란의 피자 파티를 열었다. 도덕적 권태가 재앙과 고통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형국이다. 특히 여성의 이해를 대표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책의 수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좋은 일자리도 없고 가정도 만들지 않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 30대 여성의 비혼율은 40%에 육박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접행동 네트워크’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이러한 국가 부재 상태를 반영한다. 일견 아나키즘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직접행동은 “어떤 제도적 통합을 이루도록 압박하고 타협하는 일을 포함해 폭력적인 제도 자체를 철저히 거부하면서”(25쪽) ‘정책’에 반대한다.⁶⁾

‘정책’이라는 개념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국가나 통치장치를 전제로 한다. ‘정책’은 정치의 부정이다. 정책은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여기는 특정 엘리트 계층의 산물로 정의한다(위의 책 47쪽).

즉 정책은 열정적 정치 이후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협상의 언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이론’이나 개념을 찾게 된다. 페미니즘은 이런 직접행동을 통한 자율의 네트워크의 동학이 되는 개념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권교체가 페미니즘 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성리더를 국회로 입성시키는 것이 조직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나 또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5)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주혜연 옮김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서울: 산책자

6)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나현영 옮김 (2016), 『아나키스트 인류학의 조각들』, 서울 포도밭.

나서서 처리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을 얼마나 떠들고 다녔던가? 왜 국가를, 정권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왔을까? 재앙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국가에게 다시 '보상'과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는 발전과 재앙 모두의 단독적 결정자로 군림해 온 제도권 정치는 더 이상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의 직접행동 네트워크는 어떤 의제들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2) 혐오지형의 남성연대

페미니스트나 여성부 등을 대상으로 '선택형 공격'을 하던 여성 혐오 담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확장된다. '개똥녀' 담론, 2006년 '된장녀' 담론을 시작으로 '한국의 모든 여성'이 유형화되고 비하되기 시작했다. 이는 2007년 '군삼녀,' 2008년 '신상녀,' 2009년 '루저녀,' 2010년 '명품녀' '폐륜녀' '지하철 반말녀' 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2015년 모든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 담론을 만들어내며 그 정점을 찍었다. '김치녀' 담론은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은 근원부터 문제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포장을 하던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일베를 중심으로 인간만도 못한 **충 담론이 등장하면서 여성들은 '성과', '낙태충', '맘충' 등으로 낙인화된다(윤보라 2015).⁷⁾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 여성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반대 향으로서 설정되면서 마치 특수한 인종으로 선별되었고, 이런 여성들은 선진화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혐오담론이 적극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직에서 임신 및 육아 휴가를 쓰는 여성은 회사나 동료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민폐녀'로, 경제적/개인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무개념녀'로 규정되었다. 결국 이런 여성들을 증거, 채집, 기록, 유포, 평가하는 행위 즉, 속아내기 식 여성 혐오가 마치 건전한 시민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애국 시민의 행위로 언설화되었고, '훈육 정서'를 지닌 광범위한 시민들을 감정적, 도덕적으로 규합해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성혐오담론은 사실 진보남성과 보수남성을 정서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대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가부장적 기득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보수), 국가가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며 계급 격차를 확장시키면서 인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진보)는 이유로 국가와 정권에 반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에 대한 저항과 여성 기

7) 윤보라 (2015),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 윤보라 외 지음,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서울: 현실문화

득권자로 보이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혐오는 동시에 극에 달하고 있다. 즉, 이 둘은 (일베를 루저들이라 비난하는 진보남성도 포함하여) ‘국가’와 정권에 반대하면서, 이를 ‘남성민족’ 공동체로의 회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리란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대타자로 동일시했던 국가와의 ‘균열’에 대한 공포는 가장 큰 감정적 자산인 전통적 남성 공동체로의 복귀를 통해 회복된다. 이 때 성 상품화와 여성 외모의 오락거리화는 여전히 이들을 묶어주는 안전망이 되고 있다. 험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던 진보 남성의 ‘진보’가 여성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전제로 한 객기임은 자명하다. 여성혐오가 국가/자본-진보-우파의 연대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⁸⁾ 시민운동가 몇 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했고, 야당이 선거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도 드러났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훈육사회에서 살았고 그렇게 길들여져왔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에 포섭된 자와 저항하는 자 모두 정치적 혐오를 여성혐오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권위주의적 국가와 기득권층,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한남충’은 여성 혐오를 통해서 새롭게 결집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이는 결국 여성혐오는 혐오만 난무하고 정치는 실종된 상황을 낳게 했다. 반면에 중요한 지점은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촛불소녀’와 ‘유모차 부대’,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등 실질 정치에서 가장 열렬하고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진보진영 남성들과 소통가능성과 친밀성, 연대의 습관 등에 익숙해있고, 이는 정치의 축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정서적 딜레마를 고민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이뤄낼 것인가? 메갈의 방식대로 ‘패면서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남성을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어떤 젠더 정치를 수행해야 하는가?

3) 페미니스트가 다른 페미니스트를 돕는다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는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경로가 있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특정 시기에 ‘우연적이고,’ ‘흥분된 감정’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러한 감정을 다른 여성이나 소수자들과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오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여성들은 비록 꼴팸으로 폄하당하면서도 살아 숨쉬는 ‘행복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 일상의 문화를 전복하고, 조직운동이나 게릴라식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지난하고 장기적인 성 전쟁에 합류한다. 자기모순, 빈곤, 열악

8) 정희진 “티셔츠 한 장으로 맺은 ‘남성연대’, 한겨레 신문 2016년 7월 30일자

한 노동, 폭력 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메갈 페미니즘의 등장은 포스트-메갈 이후의 변화된 젠더 관계를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페미니즘의 아젠다는 이제 단일하지도 않고, 동시에 집단적 역량을 구성해낼 만큼 동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도 않다. 조직 운동을 통해 법제화 및 국가를 다루는 것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페미니스트들과 ‘이론’이나 정치적 올바름의 담론을 생산해 온 학자 페미니스트들의 기대와 요구를 2, 3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억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하다. 사실 ‘차이’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생기는 배제와 폐쇄성, 페미니스트들 간의 ‘권력’ 차이에 대한 민감성에서 비롯한 불신과 혐의, 여성들의 경험 세계 간 이질성의 확대 등에 의한 변환기의 ‘불안들’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불안들은 세대간에 서로 ‘배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낳게 함으로써 소통 불능을 미리 단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일한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규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맥락에서 여성 운동 내부의 다양한 차이의 지점들을 긍정적으로 상상하기 위한 ‘인식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쉽게 ‘제휴’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현실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운동방식과 조건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성찰’하고 전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벌여 온 지난한 ‘운동’의 수혜자로서, 동시에 기존 운동을 변화시켜내는 ‘촉매자’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메갈 페미니즘 이후의 구체화될 미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 ‘혐오에 대항하는 미러링화된 혐오’ 싸움에서 꼭 전리품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전략화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간의 창의적인 연대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상호 존중과 연속적인 역사관속에서 ‘구조적 해결’을 이뤄내는데 협력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hmkim2@yonsei.ac.kr)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여성주의 인류학, 젠더와 노동, 이주와 다문화주의, 도시와 생태주의가 연구 관심사이다.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기>의 저서와 <일상의 여성학>,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젠더와 사회> 등의 공저가 있다.

한국여성재단 9월 22일(이 글은 발표용 메모로, 인용이나 복사를 삼가주세요)

디지털 인간(digital natives)의 등장과 양성평등론의 문제 - 미디어, 혐오, 여성운동

정희진(여성학 강사)

* 序

한남도(韓男圖)

“13인의 한남이 실췌 달고 질주하오 / 제1의 한남이 김치녀가 무섭다고 그리오 / 제2의 한남도 꽃뱀이 무섭다고 그리오 / 제3의 한남도 테이트비가 무섭다고 그리오 / 제4의 한남도 성괴가 무섭다고 그리오 / 제5의 한남도 여상사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10의 한남도 거울이 무섭다고 그리오...

- 미러링?

젠더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카테고리이며, 이에 따른 범주화는 권력관계와 더불어 끊임없이 각 단계마다 작동하고 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은 남성의 실재폭력은 오랫동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성의 언어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그 자체로 성별적 선입견에 근거한다. 처음에 도저히 여성이 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미러링의 표현들을 사실 지난 10년간 여성들도 숙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그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를 활용하겠다고 결정한 데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는 혐오발화를 둘러싼 남녀의 세력다툼이 아니고, 말과 매체, 그리고 장르와 창작을 둘러싸고 사회적 금기와 자기

재현 사이에서 여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류진희, 근간).

- 디지털 인간의 탄생

온라인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으며 관계 맺는 ‘선상(線上)’의 인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아나키스트’.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집중 화력과 조직화(nation). “좌표를 찍는다”. 완전히 다른 세계, 언어, 삶. 온라인이 실제 세계. 나오지 않음. 나올 필요 없음. 익명/실명의 개념 없음.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킴(“온라인 여론”). 2000개의 매체. 혐오 산업. 세계 제1의 온라인 인프라.

- 미디어와 혐오

- * 도구의 발명과 자아의 변화. *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 * 기계는 인간 몸의 확장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한 것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다. 자기 단절 혹은 확장이 자기 인식을 가로 막음.
- * 인간의 확장(extension)인 미디어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하는>인자(因子)이지,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인자는 아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요인이 아니라 사건을 만드는 요인.
- * 매스 미디어는 수용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시에 관여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인 것이다.

- 미디어, 인용을 초과하는 발화의 조건

- * 주체가 구성된다는 수행성 이론에서 인용(cite)은 매우 중요한 개념.
- * “행위 뒤에 행위자 없다” - 행위자를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 담론의 효과로 봄. 주체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효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행위의 효과라는 것이다. 주체가 되는 방식 중 하나는 인용(cite).
- * 모든 행위는 이전 것의 모방이다. 하지만 그 모방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패러디, 기존 것의 인용... 주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구성된다는 것이지, 주체가 ‘없다/있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 혐오 발언(ex/citable speech)은 이처럼 맥락 이탈과 인용에 취약한 탈-인용 가능한(ex-citable) 발언

- 미디어, 자본주의와 윤리(페미니즘의 '동참')

* 근래 자본주의와 과학 기술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형식의 양심 종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 북이나 트위터의 장/단점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장단점은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는 관념론이다("악용하지 말자!"). 그보다는 SNS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의 진보, 보수(페미니스트까지) 너나없이 발전주의자들이다. 이들 모두 IT 기술이나 스마트폰의 진화에 열광한다. 성장주의와 민주주의는 상극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SNS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다. 첫째, SNS는 날마다 갖가지 기록을 갱신하는 극단의 자본주의 체제에 범퍼(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 보내기, 현실 도피, 자기만의 세계를 충족시키는 장난감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둘째, SNS는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온라인은 가상세계고 오프라인은 현실이 아니라 모두가 현실이다. 진짜 현실도 SNS도 다양한 현실들의 하나다.

때문에 SNS의 헤비 유저들은 현실 세계의 '루저'가 아니라 다른 현실의 국민이요, 주체다. 이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시민권)와 익명성, 연결망으로 다른 현실의 '주류'를 공격한다. 이들 중 일부는 키보드 노동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혐오 산업을 생산한다. 유명 인사를 괴롭힘으로서 자아를 고양한다('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일 것이다). 키보드만으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시대다. 가장 큰 문제는 SNS의 자아가 또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아예 '동명이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페이스북 북을 운영하는 사람과 페이스북 북에 재현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기가 발생한다. 온라인상의 욕설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도 문제지만, 이는 새삼스럽지 않다. '일베'는 새로운 미디어가 곧 권력이라는 것, 즉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임을 잘 보여준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언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자기 홍보는 규제가 없다. 페이스북 북에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올바른 페미니스트', '억압받는 소수자 대표', '미모의 개념녀'가 넘쳐난다. 개인의 일상

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기도취와 관음증, 노출증을 전제한다. SNS에 자기소개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예전에는 국가가 여론을 조작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여론을 만든다. SNS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이미지를 과잉 재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SNS의 ‘이미지’로만 사회적 영향력을 갖거나 거짓 모금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팔로워 숫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일상을 접고 온라인상에서 세력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실제 삶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양심의 자유는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필요한 권리이고, 양심의 의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윤리다. 후자에 기반 한 전자의 실천은 도인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매체의 발달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기술의 한계보다 양심의 한계가 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남혐과 주류화(여성운동과 신자유주의), 양성평등론의 문제(근간 일부)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가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등장했던 80년대 초반 이후,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양성평등(兩性平等)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유독 외래 이론의 대표적 사례로서 배척당했던 ‘feminism’의 번역은 ‘여성해방주의’를 거쳐 ‘여성주의’로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중심주의’ 혹은 ‘여성 특권주의’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인 성차별 자체에 대해 초남성주의(hyper masculinity)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과 합의는 어려운 문제이다. 극단의 성차별 사회에서, 성차별의 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최근 여성에 대한 혐오 사건을 두고 두드러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 혐오 발화나 온라인에서 여성 인권 침해 사례들은 신자본주의 시대 인생, 그리고 매체의 시대(미디어는 메시지다)의 영향이라는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순간, 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공적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이 “우리 친하게 지내요”라는 공식 현수막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남자랑 여자랑 그만 싸우고 좋게 지내자” 뜻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를 단순한 여성 문제(gender)에 대한 무지(illiterature)라고 봐야 할까? 이것은 물론 정치적 입장이지만 대단히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사회 현상

이다. 젠더가 사회 구조적 모순임을 모른다 해도, “자본가와 노동자, 우리 친하게 지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친하게 지내요” 식의 공식 입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은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여성이 성차별을 참았는데), 갑자기 남녀가 불평등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反사회적 여성’이 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미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들의 저항하다니 어이없는 역차별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양성평등”은 의미 없는 말이다. 원래 평등했고, 최근에는 여성이 더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젠더, 인종(race), 계급(class)은 흔히 서구 사회과학 이론에서 3대 사회적 모순으로 뽑힌다. 한국사회에도 학벌, 지역, 외모, 이주 노동자와 탈북자에 대한 차별 등 인종 모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분 제도’가 있다. 사회적 모순은, 주지하다시피, 그야말로 모순(矛盾, contra/diction)이다.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말한다. 적대란 집단과 집단 간의 노동과 언어에 대한 착취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국가, 지식인, 시민사회, 일반 국민 모두 젠더가 사회적 모순(분석 범주)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여전히 여성 문제는 복지와 배려의 대상, 부차적 문제, 사소한 문제, 가십(gossip), 비(非)정치, 탈(脫)정치의 대명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나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양성평등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고, 남성들에게는 생소하고 과격하고 껄끄럽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간극을 어찌 할 것인가. 때문에 일상이 폭력과 차별과 모욕과의 전쟁 혹은 이중노동의 연속인 여성들에게 양성평등 담론은 한국사회의 근대성 지향에 기댈 수 있는 구호였다. 양성평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권위를 비판하는 보편적, 근대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담론이다. 자유주의적 사유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급진적일 수도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남녀 간의 위계를 부정하고 남존여비가 아닌 ‘양성’이고,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부장한다.

그런데 이 책의 요지는 양성평등 담론이 여성의 젠더 이해(gender interests)를 반영하지 못하는 관념론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반격(backlash)을 부르는 논리, 남성 중심적 논리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평등은 그 기준이 누구의 삶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물음이다. 평등을 위해 노력یدن ‘배려’해야 할 집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양

성평등 담론이라는 허구지만 그럴듯한 담론과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하여 한국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젠더 문제의 가시화, 여성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양성평등 담론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은 것은 최근이다. 미소지니(misogyny, 여성에 대한 혐오) 논란이 그것이다. 온라인 환경의 변화, SNS의 발달로 여성 혐오 발화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역시 일상이었던 여성 살해 사건(강남역 사건)이 가시화되자 여성들의 당연히 여성 혐오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남성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비난한다며 이를 ‘남혐’ 현상으로 명명했다. 여성과 남성은 상호 혐오를 통해 드디어 ‘평등’해졌다.

나는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과학적’ 사실인 “인간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념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양성이라는 이분법은 정말 동등(同等)으로서 1:1의 이분(二分)인가, 평등은 무엇인가, 평등 담론의 기준은 누구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양성평등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제까지 양성평등 담론에 입각한 여성주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양성평등은 최근 여성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남성에 대한 혐오로 독해될 수 밖에 없는 인식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여성주의가 남혐이 되고, 이러한 현상을 상호성, 호혜성, 평등한 주고받기로 규정하는 ‘이혐(異嫌)’이라는 언어도단이 등장했다. 정희진의 글은 양성평등 지향의 여성주의 담론이, “성차별은 현실이 아니며 남녀대칭, 남녀적대, 여성의 우위”라는 남성성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이 한국사회의 혐오현상과 결합한 상황을 보고한다.

요지는 간략하다. 양성평등에서 양성은 누구이며, 평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실재이고 가능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 현상을 본능이나 자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로 비유하는 것은 오래된 통치 전략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를 본질화(naturalization)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문제를 “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듯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규정하면, 변화시킬 수 없는 영원한 진리처럼 여기는 것이다. 언어와 현실 간의 문제, 즉 실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현실(present)은 특정한 위치(position)에서 언어를 만드는 권

력에 의해 구성된 재현(re/present)이라고 보는 여성주의나 후기 구조주의는 자연의 개념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해온 집단일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자연의 의제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자연과 문화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자연 자체는 또 어떻게 질적으로 변환을 지속하는가를 연구한다. 생물학이 그 대표적 학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은 문화와 환경과 자연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문학이다.

인간이 만든 지식 중에서 가장 자연화된 영역은, 암수 구별은 생물의 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표식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하등동물은 자웅동체, 포유류와 같은 고등동물은 자웅이체라는 ‘상식’일 것이다. 이에 따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뚜렷이 구별되고, 여성은 출산력은 성별 분업이 사회 제도가 아니라 본능에 따른 합리적인 구분이며, 이를 거스르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통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인간 사유의 어떤 영역도 당연하거나 자명한 것은 없다. 자연의 개념이나 어디까지가 자연인가라는 질문, 즉 자연의 범주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존재(생명)의 증거가 생각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계급이나 신분은 하늘의 질서로 생각했던 (봉건)사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른 다양한 형태의 빈부 격차가 맹위를 떨치는 시대다. 우리는 계급의 양극화가 신이 정해준 질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몸의 차이들 -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등 -은, 특히 성별(性別, gender)은 ‘생물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인간이 남성과 여성, 양성(兩性)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작동한다. 동시에 인간이 양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사고는 인간의 언어와 사유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분법이나 짝(pair, 雙)의 논리가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오해, 오식(誤識), 편견, 고정관념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중립적, 보편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자의 위치에 따라 ‘진리’가 어떤 사람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한 정보가 절실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남성 중심적, 서구 중심적, 미국 중심적, 서울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논리에는 말하는 주체(the definer)와 그에 의해 규정된 타자(the defined)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것이 이분법(dichotomy)이다. 즉 이분법은 대칭적, 대항적, 대립적 사고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논리다. 언어는 신이 만든 공정한 말씀이 아니

라 인간이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누군가 먼저 말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분법은 나쁜다고 보다 언어가 만들어지는 일차적인 원리이다. 사람들은 이분법에 기초해 사고하면서도 상대방의 언어가 이분법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면, 남성은 남녀 간의 조화를 원하는데, 페미니즘은 매사를 남녀로 구분해서 생각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 기업은 노사 화합을 원하는데 노동자들은 노사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이다. 동성애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성애자와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인권인데, 지배 이데올로기는 질서, 그것도 자연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시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술자리는 여성 비하적이어야 정상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존의 인류 문명이 사용해왔던 거의 모든 지식 체계는 주체-타자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의미는 차이를 통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이를 누가 규정했는가이다. 이분법적 사고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위계를 대칭으로 위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 둘째, ‘대립’하고 있는 이항 외 다른 존재 혹은 다른 방식의 사고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서 모든 언어의 모델, 척도, 기원, 전형으로서 인류를 지배해왔다.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 3의 성’이든 모든 인간의 해방과 상상력을 제한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글에서 이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이분법이 대칭적이지 않음을 밝히지 위해서이지 이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분법‘적’ 논리가 없었다면, 어떤 의미도 형태를 갖추기 힘들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는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은 반대말/비슷한 공부다. 단골 시험 문제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도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것과 다른 말이나 유사한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조차 이용할 수 없다. 사전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후자의 ‘무엇’을 모르면 단어를 찾아도 이해할 수 없다.

언어는 연결되어 있다. 모든 강력한 감정(=사고)은 함께 있으며 그것들 각각은 흔히 우리가 반대라고 여기는 감정에 의존한다.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대표적일 것이

다. 전자와 후자의 의미는 상호 의존적이다. 다름이란, 반대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단어(유사어, 파생어, 어원...)가 다 포함된다. 모든 의미, 모든 단어는 상호 구속적, 관계적, 침투적이다. 의미는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개념’이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분법은 대칭(對稱, 말 그대로 가치가 수평인 상태)이 아니라 위계이다. 위계, 이것이 이분법적 논리의 핵심이다. 이분법은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깊이 침투해 있다. 철학의 이원론(二元論)부터 수학의 이진법(二進法, binarism), 식물학의 차상분기(叉狀分岐, dichotomy)나 대생(對生), 문화이론에서의 쌍형상화(雙形象化, co-figuration)까지.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택”, “양자 택일”, “양단(兩斷)간에 결정을...” 이 모두가 이분법에 기초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하고 ‘중립적’인 이분법의 의미는 차상분기다. 말 그대로, 하나의 가지가 나뉘는 지점에 이르러 교차하면서 갈라지는 같은 크기의 두 갈래 모양이다. Y자 형태로 나뉘는 것이다. Y자는 대치, 균형, 반반(半半)의 모양새다. 이때 각각의 반반은 위계적이지 않다. 즉, 이때의 상태는 사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상태의 반반이다. ‘역사 이전’ 단계다. 이처럼 이분법이 성립하려면 일단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다. 그 두 개의 조합이 이분법의 전제가 된다. 짝(pair), 쌍(雙, duality), 이중(二重) 등등. 그리고 그 두 개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항(counter), 반(反, cons), 안티(anti), 대칭(symmetry), 대립(opposition), 결합(combination), 경합(contesting), 배중률(排中律,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 두 개의 배타적 개념 사이에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는 논리)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둘의 관계다. 그 어떤 A도 B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데, A와 B가 서로 어떤 위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는 대단히 논쟁적이다. 주체와 타자의 논리에서 이분법이 A와 B의 관계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 자기 외에 나머지 세상을 묘사한다. 여기서 자신과 외부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자연스런 차이는 없다. 무엇이 다르다는 규정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것에는 계급, 인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권력이 개입, 관련되어 작동한다.

여성주의는 이분법이 ‘A’와 ‘A가 아닌 것’, 다시 말해 A를 기원(origin)으로 규범

(norm)으로 진리로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바로 남녀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희망이고 지향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실의 인간은 A, A, A 혹은 A, B, C로 평등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선언이고 지향이지 현실이 아니다. 이분법은 근대에 들어서 인간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백인 남성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인류의 위계를 만들고 타인의 역할을 문명화 작업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강요했다.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흑인은 목화솜을 따며, 시각 장애인은 안마를 해야 한다”) 백인 남성은 A가 되어 보편, 일반, 진리, 기준으로 작동하고 그들과 다른 것은 인간 외(外)로 다른 범주로 만들어졌다.⁹⁾ 물론 A는 백인 남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산층, 이성애자, 서울 사람, 젊고 건강한 사람, 외모, 학벌,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은 언제든지 변화한다.

이처럼 이분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위한 사고다. 사용, 배치, 규정할 수 있는 백색의 권력을 말한다. 이처럼 이분법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의 논리다. 마치 차별을 분업으로 위장한 것과 같다. 젠더(gender, 性別)는 양성 간의 정치적 대립을 의미한다. 양성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존재한다. 그것은 여성성으로, 남성성은 젠더가 아니다. 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9) “BINARISM”,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 The Key Concepts*, Routledge, 2007:18-21.

페미니즘, 새로운 물결이 일다

■ 강남역 10번 출구 ■ 부산페미니네트워크

■ 불꽃페미액션

■ 페미당당 ■ 페미디아

페미니즘 말하기 공간으로,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역 10번 출구> 관리자

어느덧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지의 좋아요 수는 6,300개를 조금 웃돌고 있다. 그 6,000명 중에 관리자 개인의 페이스북 친구는 약 200명 정도. 나머지 6,100여 개의 좋아요는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눌러준 것이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우리가 하는 운동이 긍정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요새처럼 최저임금 6,030원 받으며 나 하나 먹고살기 바쁜 시절에 무려 6,1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올라오는 활동에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든다.

그 분들은 무엇 때문에 많은 페미니즘 페이지 중<강남역 10번 출구>의 활동을 지켜보게 된 것일까? 16년 새롭게 등장한 페미니즘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강남역 10번 출구>는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17일 새벽 한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후 관련 기사가 나기 시작한 것은 18일 오전,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여성혐오맥락을 가시화한 포스트잇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기 시작한 것은 18일 오후부터다.

이 때 <강남역 10번 출구>는 ‘공론장’을 만들기로 했다. 노란 포스트잇에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문장을 적어 붙이기 위해 나온 사람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눈물을 흘린 채 집에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떨리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간, 이 사회에 여성혐오가 없다는 이들에게 내 삶의 경험으로써 망할 여성혐오를 증언해내겠다고 선언할 공간, ‘나의 경험’을 넘어 ‘우리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당시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었다.

그렇게 18일부터 27일까지, 젠더폭력의 현주소 집담회에 참석했던 하루를 제외하고 8일 간 이어졌던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가 시작되었다. 페이스북에서였다, “이제까지 조용했던 여성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반응을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라고 일갈해주고 싶었다. 나는 보았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술한 폭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발언 신청이 끊이지 않아 종료 예정시간을 한참이나 넘겨, 그나마도 아쉽게 자리를 파해야 했던 일이 매일같이 반복됐던 것을. 정말 매일같이.

연대의 공간

자유발언대를 진행하며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 폭력에 대해 발화하기 위해서는 추모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과 지금 온라인상에 끓어 넘치고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를 폭발시킬 공간이 필요하다는 고민, 자유발언대에서 확인했던 여성들 간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고민들이 교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6일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라는 이름의 집회를 만들기로 했다.

6월 6일의 공동행동은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유서 깊은 페미니즘 슬로건을 증명해낸 행동이지 않았다 돌이켜본다. 서툴고 부족한 기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페미니즘 그룹, 정당, 여성단체, 장애인·성소수자 단체, 그 외 시민단체 등등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단체에서 선뜻 연대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100명 정도만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었고, 행진에 참가한 그보다 더 많았다. 젊음의 거리 홍대 한복판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며 홍대에서 상수까지의 긴 길을 행진하며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고, 추모에서 그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우리가 모이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뿐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증명한 셈이었다.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남역 10번 출구>는 넥슨 성우 부당해고 사건에 대응해 ‘Volume Up Feminist, Shut Up Misogyny’ 집회를 진행하고, ‘다른 세상을 기획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약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페미니스트 캠프 ‘무브’를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포공항의 청소노동자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가서 여성노동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하기도 했다.

2016년 우리의 페미니즘, 변화는 시작되었다

힘을 가진 쪽은 변하지 않는다.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분이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페미니즘을 허락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누가 봐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허용되는 영역을 벗어날 때, 그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메갈리아’라고 못 박으면 그만인 것이다.

변한 것은 지금까지 짓눌리고 억압받은 쪽이었다. ‘김치녀’, ‘된장녀’, ‘보슬아치’ 같은 단어에 대해 언제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던 쪽. 그러기 위해 나 아닌 다른 여성들과 선을 긋는 방식을 택해야 했던, 그런 여성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메갈리아가 문제라고 한다면 너도 메갈, 나도 메갈, 위아더 메갈이라며 ‘#내가메갈리아다’ 해시태그를 들고 나왔다. 듣는 거부장 입맛에 맞게 페미니즘 할 테니 예쁘게 봐달라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도 뵈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약자의 언어는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안다.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예쁜 말로 설득하려고 해봤자 피곤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가.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은 2016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이 구호는 사실이다. 여성들은 내부의 끈끈한 결속과 연대를 통해 이미 페미니즘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사건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계속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 같다.

지난 5월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가 무엇보다 주력했던 것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내고 그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페미니즘을 말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남겨진 과제이자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문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강남역 10번 출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지향과 목표를 이야기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페미네트워크

5월 17일 강남역에서 있었던 여성혐오 범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추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여성혐오를 이야기하고자 노동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의 이름으로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5월 17일의 희생자를, 여태까지 가려졌던 희생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를 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추모제에서 있었던 일베의 방해에 맞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같이 싸우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치고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가 겪었던 차별과 폭력을 이야기했고,
지금의 부산페미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5월 25일 동래각목남

동래에서 남성이 나무 지지대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여성에게 휘둘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건이 더욱 크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야성인 사건 지점 주변을 돌며, 여성혐오 범죄가 밤이라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앰프로 시끄럽게 떠들고 구호를 외치고 과격함 문구의 손 피켓을 들고 밤거리를 확보하며, 강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으로 길러졌기에 겪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의 장애인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월 말부터 시범운영한 부산지하철역 1호선의 여성‘배려’칸.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남성이 타도 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성배려칸이 역차별이니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언론이 비중있게 실어 주었고, 이에 맞서서 페미넷은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범운영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부산지하철역 1호선 5호칸은 여성배려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격주로 공부하고 활동 하면서

일상의 여성혐오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꽃페미, Ready - Action!

Ready, 불꽃여자농구팀, 아재정치OUT을 거쳐

아직 바람이 찬 3월 초, 서강대 농구코트 한 구석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여자농구팀을 꾸렸습니다. 슬램덩크의 불꽃 숏에서 이름을 본떠 불꽃여자농구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처음엔 지인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 소모임/성평등위원회 등을 맡고 있는 ‘페미’들이었고, 자연스럽게 농구를 하고 짜장면을 먹으며 대학 내 불평등한 성문화나 성차별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달 말, 총선운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 노동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하윤정(마포을) 후보의 ‘어둠의 선본’이 꾸려지게 됩니다. 하윤정 후보는 노동당 여성위원회 소속이자 메갈리아/미러링 열풍을 전도하던 페미니스트였고, 이를 알고 있는 하윤정 후보와 같이 알바노조 활동을 하던 불꽃농구팀의 열혈멤버 중 몇몇이 본래 선거운동본부와는 다르게 ‘어둠의 선본(여성주의선본)’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남성정치의 공간이고, 당선가능성은 희박한 후보였으나 여성의 이슈를 여성후보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났고, 당적과 관계없이 농구팀의 많은 멤버들이 공약을 말하고 아재정치OUT을 외쳤습니다. ‘무상 생리대 지급’, ‘물카방지법 제정’ 등의 당시 하윤정선본의 여성 공약을 만들었고, 여성주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성주의 선본의 목소리는 선거운동기간을 거치면서 하윤정후보의 주요 공약과 메시지들이 되었고,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은 유쾌하고 뿌듯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Action,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을 마주하다

5.17 여성혐오 살인사건 들었을 때, 모두가 느낀 비참함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무력감과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 주 토요일 강남역에서 있던 추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몇몇 멤버들과 뒤편 해보기로 하고 퍼포먼스와 밤길걷기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한 퍼포먼스가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고, 강남역과 유사한 여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퍼포먼스는 여성들이 혐오사건으로 쓰러지고, 경찰이 이 모든 사건들을 ‘묻지마 살인’으로 덮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일어나서 ‘여성혐오가 죽었다’라는 피켓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는 대검찰청 앞에서는 경찰

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는 이제까지 여성혐오사건에 대한 통계와 수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F(성적표의 fail)를 대검찰청 명패에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女인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까지 여성혐오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대응해온 방식을 말하며, 대장내시경女, 트렁크女, 화장실女 등등의 말이 적인 마스크를 쓰고, 언론이 여성혐오 사건을 어떻게 소비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강하며, 어떻게 여성들의 입을 막는지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한편, <밤길걷기>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강남역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여성들이 위축되지 말고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자는 마음과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여성의 옷차림이나 여성이 늦은 시간에 다닌 것이 잘못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행진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성폭에서 진행했던 <달빛시위>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두 번의 걷기시위를 했고, 건대입구 구분에서도 한번 진행했습니다. 시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처음 모임을 만들고 시작하면서 성과를 남기거나 이름을 알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자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고, 이름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이름은 ‘바이올렛’이었고 지금도 불꽃페미액션의 이메일주소(violetfeminist@gmail.com)에 초동모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를 마치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도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불꽃여자농구팀의 ‘불꽃’과 우리의 액티브한 활동을 의미하는 ‘액션’을 붙여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ction take2, 천하제일겨털대회와 가짜페미니스트파티

퀴어퍼레이드 당시 천하제일겨털대회라는걸 진행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불꽃 이가현이 장난으로 폐북에 겨털대회 웹자보를 올렸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리트윗이 2000개가 넘고, 그래서 진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몸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의 몸을 멋대로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습으로 털이 나는데 그것을 여성만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겨털대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겨털사진을 찍고, 가장 무성하고 내추럴한 겨털을 뽑는 스티커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뜨거웠죠.

가장 최근에는 ‘가짜페미니스트파티’라는 이름의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메갈리아와 이른바 ‘메갈티’가 논란이 되면서 “000는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다.”, “xx를 하는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등등의 이른바 페미니즘에 대한 잣대 들이대기에 반대하는 토크콘서트였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완벽성만 요구하고 잣대만 들이다면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통쾌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메갈논쟁에

힙썸린 웹툰작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DJ, 페미당당 활동가분을 모셔서 토크콘서트를 진행 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홍보만 했는데 50여명 남짓한 분들이 오셨고, 신청했던 분들은 더 많아서 페미니즘이 얼마나 핫한 이슈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After action, 이어지는 고민들

불꽃페미액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당시 언론대응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얼굴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베 등등의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고,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고, 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요청해서 불꽃페미액션이 함께 이 상처들을 치유해나가기 위한 준비와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악플들과 얼굴/신상노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대응방책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 퍼포먼스 방식의 활동을 했지만 이미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 퍼포먼스 마다 문제제점과 필요한 요구들을 담은 긴 기자회견문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렸지만, 사진과 메인구호만 보도되고 요구들과 문제제기를 온전히 담은 언론보도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키치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싶은데, 언론에 소비되지 않고 문제의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공부가 절실합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땐 ‘이름도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자’며 시작한 활동이지만, 활동에 이름을 붙이고 구심점이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욕심도 생겼습니다.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 혹은 이상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간도 돈도 언어도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나가야 할지는 아직 막막합니다.

내부 소통방식 또한 여성주의적이어야 할 텐데, 지금은 사람이 적어서 소통과 집행과정이 여성주의적이지만,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론 더 많은 ‘우리’를 어떻게 만날지도 고민해야하지만요.

Action take3- 를 향해

불꽃페미액션에서 다양한 소모임을 열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진 줌바댄스 소모임과 농구소모임을 진행하기로 했고, 앞으로 페미니즘 영화모임 책읽기 모임등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소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슈가 터지면 언제든지 또 거리로 달려나갈 마음가짐은 늘 되어있고, 10월 말쯤 할로윈을 맞아 페미니즘 파티, 문화제, 시위 등을 해볼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이... 재정이... 재정마련과 페미력 넘치는 2017년을 맞이하기 위해 2017년 페미달력도 팔아볼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단체들을 소개하고 여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을 적은 달력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미당당

♥ 페미당당 ♥

페미당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총선 전후로 여러 진보정당에서 여성혐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당의 대응은 미비하였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페미니스트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던 우리는 페미니즘을 기조로 내세우는 정당을 직접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다가 ‘페미당당’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로 사회운동을 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페미당당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2일 일요일, 페미당당의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이 여성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습니다. 당일 회의를 거쳐 ‘거울행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5월 26일 강남역에서 근조 표시가 붙은 거울을 들고 서로를 비추는 ‘거울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울행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와 일상에 내재한 여성혐오 때문에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페미당당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사회운동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페미당당이 기획 또는 참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6일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공동행동

‘강남역 10번 출구’가 기획한 반여성혐오행진에 공동개최단위로 참여하였습니다.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홍대앞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사전 진행된

부스 행사에서는 ‘거울행동’ 소개, 페미당당 손깃발 배포, 페미당당 소개문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 6월 12일 첫 오픈 세미나

페미니즘 연극 극본으로 유명한 이브 앤슬러의 『버자이너 모놀로그』(류숙렬 역)을 읽고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지를 관찰하고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생리와 자위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2주 후 이어진 2차 세미나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직접 자신의 '보지 독백'을 쓰고 낭독하였습니다. 이후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 7월 8일 제1차 페미파티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즐기고 서로 사귄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영등포 바 ‘신도시’에서 제1차 페미파티: “Feeeeee-kk!!!”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검열과 대상화에 반대하는 파티였습니다.

♥ 7월 21일 넥슨사태 공동대응

‘강남역 10번 출구’가 기획한 반여성혐오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넥슨이 메갈리아4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우의 ‘목소리를 지운’ 사건에 항의하는 의미로 ‘FEMINIST’ 티셔츠를 즉석 제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 8월 15일 페미당당 창당 연대회의

페미당당은 사회운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그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여성혐오 네트워크 구성원을 소집, 페미당당을 법적 효력을 가진 정당 단위로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페미당당 구성원간의 내부 회의 결과 2016년 연말까지 여성주의 정당의

필요성과 정당 창당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창당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 9월 2일 제2차 페미파티

페미니스트 파티 기획 및 디제이 그룹 '비친다'와 함께 홍대 클럽 프리버드2에서 제2차 페미파티 '파티 4'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페미당당은 세미나, 파티와 같은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인 서울: 페미설'이라는 새 프로젝트를 10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를 인터뷰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로입니다. 또한 여성주의 정당 창당, 여성 유권자 네트워크 형성 등 페미니스트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정보생산자조합 페미디아

‘여성주의 정보생산자조합 페미디아’는 2016년 5월 9일, 한국에 더 많은 여성주의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Your Feminist Idea’를 줄인 ‘페미디아’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페미디아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인천 지역과 녹색당에서 생태주의 및 청년활동을 하던 진달래씨였습니다. 그는 우리말로 된 여성주의 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던 중, 올해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문제에 관련된 외신을 번역하고, 여성주의 및 젠더 관련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는 웹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을 알렸습니다. 때마침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짧은 시간에 진달래 대표의 문제의식과 사업 계획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30여명 모여 <페미디아>를 창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해 현재는 약 6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미디아>는 창간 이후 현재 페이스북(좋아요 9,765명)과 트위터(팔로워 4,600명)를 통해 여러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환대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 매체입니다. 창간 소식을 알린 <한겨레>를 비롯, 쿼터퍼레이드에서의 활동을 취재한 <여성신문> 및 <일다>, <블로터>, <경향신문>, <시사in> 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첫 두 달 동안 페미디아는 총 100편이 넘는 글을 발행했으며, <허핑턴포스트> <블로터> <직설> 등 다양한 매체와 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살해’(femicide)이자 혐오범죄로 명명하고 이에 관련된 기사들을 발행한 몇 안 되는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글들의 번역, 가부장주의적 가족제도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간지의 칼럼에 대한 비판적 칼럼의 발행 및 출판 프로젝트 등의 활동으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쿼터 문화축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벨 훅스는 여성주의를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

려는 운동”이라 정의했습니다. 페미디아는 짓밟힌 이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짓밟는 구조와 문화를 고발하고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번역팀에서는 젠더문제에 대한 외신 뉴스를 우리말로 옮기고, 연구 소개팀에서는 여성학/젠더학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를 설명하며, 칼럼팀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주의 게임, 만평, 교육서, 영상 등의 콘텐츠와 문구류 등의 굿즈 제작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성해방 없는 해방은 해방이 아니며 여성인권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서로 연결되어 물결을 일으킨 덕분에 페미디아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성주의는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민족과 국가, 전공과 방법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페미디아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영역과 방식 또한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더욱더 많은 여성주의를 펼쳐 더욱더 많은 물결에 힘을 보태고 온 세상을 뒤엎어버릴 거센 파도를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1) 우리가 보고 싶은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자, 2) 여성주의 담론 영토를 넓히자, 3) 천천히 지속가능하게 가자는 기조 하에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분과토론: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 젠더폭력 ■ 여성노동

■ 여성정치세력화

■ 여성주의 문화운동 ■ 생태주의와 여성

■ 퀴어 페미니즘

젠더폭력

성폭력 가해자가 ‘가정침해사범’으로 불렸을 때 10)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

1983년, ‘가정침해사범’이 있었다.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 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당시엔 추행과 강간은 구별되어 쓰이지 않았다). 그해 1983년 6월 다방에 들어가 강도와 강간을 일삼은 20세 서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동아일보, 1983. 06. 28)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찌르고 부인을 강간’한 장모씨는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있었다. 21차례 강도강간을 저지른 황모씨와 공범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4명은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동아일보 1983. 5. 18). 당시 신문은 형법상 단순 강도강간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병합되어 재판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80년대 강간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추행은 중죄’라는 점에서 일관되다. 심지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정과괴사범은 반드시 잡아 초범자라도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까지 내릴 만큼(매일경제, 1985. 11. 02) 80년대 성폭력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강간범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던 1980년대 기사와 2016년 한국사회의 성폭력 처벌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일은 꽤 흥미롭다. 알고나면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해온 우리의 상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동료 직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2016. 04. 20). 5월에는 아내의 친구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10) 이 글은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의전화가 기획한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연재를 위해 작성한 글로 부분 수정 후 여성주의저널 ‘일다’에 수록된 글임을 밝힙니다. (기사 확인: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500)

점” 때문에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아시아경제 2016. 05. 13),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20대 남성도 대학생/초범/처벌불원/반성함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세계일보, 2016. 05. 19). 2김혜정 영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은 66.5%에 달했다(2012년 43.6%, 2013년 52.3%). 이쯤이면 현재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의심해볼만도 하다. 하지만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첫 시행된 이후 4차례의 개정 끝에 최소1년6개월~최대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정비되어 있다(*일반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르며, 누범 등에 대해 1.5배 가중할 수 있다). 죄값을 치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양형을 정비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유달리 강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다.

무분별한 엄벌주의와 무분별한 온정주의 사이 ‘여성’은 없었다

1980년대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을 언도했듯이 지금도 ‘엄벌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30년 전 재판부가 15년/무기징역/사형을 선고했어도 강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엄벌은 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재판부가 강간범의 미래를 (이렇게 격하게) 고려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피해자의 미래가 가해자의 미래보다 가볍게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쉬운 용서는 가해자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가해자에게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가해자에게 계속 ‘그런’ 삶을 지속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며, 이런 판결은 사회적 문제인 성폭력에 눈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런 정서에서 성폭력이 줄어들 리 없다.

요컨대 1980년대 무분별한 엄벌주의와 (피해에 무감각한) 2016년 무분별한 온정주의 모두 성폭력 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 있다. ‘여성의 인간화’ 혹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30년 전부터 말해왔지만, 한국사회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여성에게 아(오)빠가 허락한 그 만큼만 자기결정권을 누리라고 답해왔다. 강간범을 엄벌하던 재판부가 온정주의로 태도를 변경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여성들이 ‘더 이상 보호는 필요 없다’고 외친 1990년대-성폭력 제도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완성됐다.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외친 이후, 가부장의 보호를 거부하고 ‘여성(도)은 주체적인 인간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외치는 여성들이 등장한 이후에, 재판부는 급격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거두기 시작한다.

이쯤해서 1980년대 강간범을 ‘가정파괴범’으로 호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절 국가와 법이 성폭력이 범죄로 사회에 받아들여진 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강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가정’에 있었다.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묻은 죄는 이씨의 부인을 욕보인 죄이며, 따라서 피해자는 이씨의 부인이 아니라 ‘이씨’였다(경향신문, 1983. 03. 05). **침해받은 것은 가정의 권한이지 피해자의 존엄이 아니었다.** 실제로 신문에도 피해자는 이름도 성도 없이 ‘이씨의 부인’으로 적혔다. 남편 이씨의 가정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사회는 그 여성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겐 관심이 없었다.

멘붕은 가장이 가정파괴범일 때에 온다

80년대 한국사회의 멘붕은 가장이 가정파괴범일 때에 온다. 1982년 경향신문은 ‘「아내강간」 범죄시는 부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아내강간’을 강간죄에서 분리한다. 영국의 법의학자를 인용하면서 기자는 남편을 강간범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힌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약 2백만명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모조리 강간범으로 취급하거나 이혼의 사유로 몰아붙이는 일은 가정파탄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경향신문, 1982, 08. 10).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가정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아내 구타도 예외가 아니다. 미리 말하지만 아내구타와 아내강간은 아내의 경험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구타 후 강간은 공식처럼 일어나며(그것은 ‘화해’로 포장된다), 폭력관계에서 일어나는 강제적 성관계는 성폭력과 구분되기 어렵다. 1980년대에 아내 구타는, 기소는 커녕 범죄구성요건도 되지 않는 아내강간과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이유있는 매질은 구속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동아일보, 1983. 07. 25.).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고발한 부인’의 사연은 신문 하단 가십란(동아일보, 1983. 08. 22)에 실릴 정도로 가볍고, 아내구타를 문제삼는 신문에서조차 ‘아내의 잘못을 다스리는 방법이 유독 폭력이어야만 하는지’를 물으며(경향신문, 1983. 07. 27) 남편의 ‘아내 다스리는 방법론’만을 문제삼았다. 1984년 경향신문은 ‘아내 강제로 범해도 강간’이라는 뉴질랜드 법개정 뉴스를 단신으로 내보내지만, 한국사회에서 아내강간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20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가능해

졌다. 그리고 이 판결로 필리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남편은 재판 결과에 억울함으로 호소하다 자살했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억울함을 풀고 싶을 만큼 아내강간은 한국사회에서 강간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았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 성폭력을 ‘가정 내 성폭력’과 ‘가정 외 성폭력’으로 구분하고 결국 가정 내 성폭력이 최종법안에서 제외된 건, 성폭력을 가정과 관련된 문제로 사고했던 당시 인식의 한계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제도화의 효과는 2016년 한국사회에 강렬히 나타나는 중이다. ‘가족’은 가부장적 성역인 채로 30년을 넘근히 버티는 중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은 가정 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회자되는 중이며, 그렇다고 해서 가정밖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생성되는 형편도 아니다. 꾸준히 여성들에게 “보호해줄테니 그만 좀 해”를 외치는 중이며, 그 말이 심지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줄 아는 형국이다. 하지만 ‘보호’는 정의나 평화와 거리가 멀다.

성폭력 연속선과 그 성별성

1983년 당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아내구타, 인신매매, 매매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고, 실제로 여성의전화에 걸려오는 전화는 그 모든 폭력을 포함했다. 여성들은 그런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간다. 이 경험을 가정내/외로 구분될 수 없고, 직장 안/밖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동의/비동의로도 구분될 수 없다. 여성의 생애에서 이 경험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리츠 캘리(1987)가 이야기했듯이 여성에게 성폭력은 일생동안 경험하는 어떤 것이며, 사건을 규정하는 방식과 주변인들의 영향력 속에서 피해의 내용과 방식은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 성폭력을 ‘수치’로 입증하라는 사회에서 피해는 수치로 경험되기 쉽지만 부끄러움이 가해자의 몫인 사회에서라면 수치심과 비난, 고통은 피해자의 몫일 수 없다. (부끄러운 소매치기 피해자를 본적 있는가 말이다) 강남역 10번출구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일상적 성폭력 경험들은 이제야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에서 분노스러운 현재의 역사로 쓰여지고 있다. 개인의 기억은 이렇게 역사로 이동 중이다. 그 역사적 경험들이 일러주고 있듯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서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

가장의 소유물을 파괴한 죄를 묻는 80년대 엄벌주의나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지금의 온정주의는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구도에서 비난과 수치는 모두 여성/피해자의 몫이 되어왔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서 시선을 거

둘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성폭력의 연속선과 그 ‘성별성’에 직면해야 한다. 새롭게 공부할 것도 없다.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들이 미리 일러주었듯이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통제의 방식이고(Kelly & Redford, 1987), 실제로 ‘강압적 통제(성폭력)’는 젠더구조가 보다 평등하게 변화하려는 시점에서 나타났다(허민숙, 2012). 의심할 것 없는 여성표적 살해 사건을 두고, 무모하게 여성표적살해가 아니었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벌써 많은 이들은 알아버렸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성폭력이 비단 ‘남성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했다. 겉모습만으로 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서로 다른 위치를 할당해온 이 세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중이다. 여성을 도구로 삼는 일에 이미 익숙한 ‘자신’을 발견하는 중이고 성별을 떠나 이찌다 이 지경인 세계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는 중이다. 남성들은 스스로 ‘내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현실 여성들은 이것을 통제와 위협으로 감지한다는 걸 이해하는 중이다.

구별짓기에 맞서는 싸움

80년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이 시작하지만 았았다면, 다시 말해 성폭력이 가정침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지배의 문제/여성을 인간화하지 았는 문제라고 여성들이 들고일어나지만 았았다면, 성폭력 사범들이 지금처럼 가볍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은 았을 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철회했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소유물의 위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여성들을 응징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게 내가 보호해준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좋았잖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니, 그걸 지금 나보고 인정이라도 하라는 거야?”라고 말이다.

젠더체계를 유지/재생산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았었는데 이런 상을 주셨다는 황정민의 수상소감을 빌자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았는 것도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았지 았고 밥상 옆에서 ‘나는 안먹음’이라고 관조하는 이도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나는 안먹는데 왜 날 가해자 취급이야?’라는 말은 그래서 부적절하다. 구조의 부당함을 말하고 았는데 마치 이 구조의 밖에서 살아가는 외부

인처럼 말해서 그렇다. 절대자의 위치란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체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이건 남녀싸움이 될 수 없다.) 밥상 위에 올라와 반찬이 된 여성들은 종종 맛으로 평가되곤 한다.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한다. 음식이 인간이 되는 방법은 요리사가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간 사회가 여성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몇 안되는 단어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고생이 많았다. 현모양처와 개념녀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요리사는 밥상에 자기 수저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잘 차려진 가부장제 밥상에 겸상은 불가능하다.

강남역 10번 출구 발화 이후 감상불가능한 젠더시스템을 인지한 이들이 힘있게 움직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말하면 안되는 줄 알았던 여자라서 겪은 성적 폭력의 경험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 ‘가족’은 침묵을 수행하게 하는 구체적인 집단이라는 것도 새록새록 밝혀지는 중이다. 2015년 여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낀 이들은 상자를 닫기는 커녕 감춰놓은 상자를 뒤져서 찾아내 봉인해제시키는 중이다. 덕분에 여성에게(만) 위험한 이 세계를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성(몸을 가진 이)들’은 하나둘씩 ‘여성에게(만)’ 분할 배정된 이 세계를 알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치마를 입고 여성혐오 반대 행진을 함께하는 ‘남성들’은 더 이상 이원젠더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의한 신중한 투사들이다. 성을 구분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을 때 ‘여성표적살인’은 불가능하다. 여성이 누구인지/남성이 누구인지 도통 구별해 낼 수 없는 세계에서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할 방도가 없겠다. 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거다. 이 싸움이 ‘구별짓기’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힘든 과정이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여성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이다.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는 중이고 귀를 열기만 한다면야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볼륨이 커졌다. 말과 글이 많아지고 볼륨도 커졌으니 이제 더 잘 들을 수 있겠다. 들으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어디쯤에서 어떻게 이 젠더체계와 연루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다. <끝>

젠더폭력

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

바람

들어가는 이야기

온라인 유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형태마다 익명성이나 멤버십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젠더 폭력의 양상도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과 뉴스 구독 정도의 사용자와 게임이나 비공개 커뮤니티의 사용자의 체감 온라인 젠더 폭력은 다를 것입니다.

보통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들은 검색이나 뉴스 정도로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10대부터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온라인 환경에 매우 친숙하고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 여성들은 게임, 메신저, 앱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사용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여성 혐오와 대응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대별 특성과 자라난 온라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여성 혐오 현황과 여성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 현황에 대하여

1) 온라인의 분류

- 간단한 구분 : 커뮤니티(카페, 홈페이지, 네이버판 등) /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메신저(카톡, 라인 등) / 게임 / 스마트폰 앱 / 이 외에도 뉴스, 소셜커머스 등의 다양한 곳
-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형태들 : 댓글, 게시판 글, 게임이나 트위터 디엠 같은 개인적인 대화, 유튜브 영상 등

2) 여성혐오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 콘텐츠 제작 및 유포 :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패션", "너무 똥똥한 걸그룹 00", "지하철 무개념 00녀" 등의 외모와 개념녀 기준을 만들어 냄. 자료를 왜곡하거나 가짜 자료를 만들기도 함. (여성부장관 아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 > 사실은 딸만 있음. / 무개념과의 카톡 대화 > 조작한 자료)
- 편향된 공식 자료의 재확산 : 기사, 뉴스영상 등 자체가 성차별적 입장으로 생산됨. "미래가 창창한 성폭행 가해자의 실수". 이러한 기사의 댓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혐오. "여자가 먼저 꼬셨네" 등의 반응. 이러한 뉴스와 댓글 반응은 복사되어 여러 커뮤니티에 신속하게 퍼짐.
- 비공개로 운영되는 여성 커뮤니티 :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면서 여성 커뮤니티는 남성들에 의해 공격 받고 조롱 당하여 점차 회원제 체제로 전환되고 회원 가입은 여성임을 증명해야하고 복잡하게 만듦. 그러나 여성혐오자들은 아이디 구매, 해킹 등으로 비공개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음. (2015년 다음카페 '여성시대' 야동 공유, 자위 기구 후기 등에 대해 비난 받고 운영자 및 게시판 지기들은 경찰에 조사 받음)
- 신상털기 : 여성과 관련한 온라인 사건 (루저녀, 0대학 불륜녀 등)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내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 소속 등이 유포되고 당사자에게 협박 전화나 회사나 학교 등에 전화를 함. 최근 넥슨 성우 교체 사건 당시 티셔츠 구매 인증을 했다는 이유로 신상털기를 당한 피해자 다수 발생함.
- 여성임을 숨겨라 : 여성 커뮤니티 외에는 여성임을 밝히지 않도록 권장되움. 특히 게임. 여성임을 밝히게 되면 남성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 전체 분위기를 흐리기 되기 때문이라고 함.
- 성범죄 동영상, 몰카 유포 : 여러가지 온라인 여성 혐오 형태들이 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봐야함. 오프라인의 성폭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어 2차 피해를 발생하고 신상털기를 통해 3차 피해를 일으킴.

2. 메갈리아의 등장

1) 메갈리아 시작부터 지금까지

– 초기 : 전염병 메르스로 인해 디시인사이드 사이트(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 메르스 갤러리(게시판)을 만들. 메르스가 해외 여행 다녀온 여성들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사실은 남자로부터 처음 전염된 것이었음. 이에 분노한 디시인사이드 내 여성유저들이 한국남자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함.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정중하고 진지한 글이 아닌 남성들의 언어를 차용하여 풍자하는 미러링을 택함. 이 소식은 여성 커뮤니티에 신속하게 퍼지고 많은 여성 유저들이 갤러리에 유입되어 더욱 활발해짐.

그러자 사이트 운영자는 10년동안 여성혐오에 대해 방관하다 1개월의 여성들의 남성혐오에 대해 글 삭제, 금지어, 회원가입, 작성 코드 입력 등으로 방해하기 시작함.

– 중기 : 익명의 기부자와 개발자 등이 메갈리안 사이트를 만들. 6개월간 다양하고 활발한 여성 운동을 함. 개인적인 성차별, 성피해 경험을 작성하거나 페미니즘 관점에 대해 의견 나눔 / 여성 단체, 여성 의원에 대해 기부 / 성차별 광고, 연예인, 잡지 등에 대해 비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사과문을 받아냄 /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 '소라넷'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외에 알리고 티비에 방영하게 함. 이후 폐쇄됨 / 언어 프레임 만들기. 남성 중심의 언어에 대해 지각하고 여성 중심의 언어를 생성함.

– 후기 : 운영자와 회원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음카페 '위마드'로 이동함. 위마드는 모든 남성 배제, 여성 한정 보호 등을 입장으로 극단적 여성주의를 표방함. 메갈리아 이후 페이스북 메갈리아 4, 다음카페 '레디즘', 다음카페 '위마드, 디시인사이드의 일부 갤러리 등으로 회원들은 이동하여 활동.

2) 미러링으로 변화된 것

– 콘텐츠의 변화 : 많은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패션, 화장' 등의 글들이 사라졌고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게 되었음. 메갈리아에서 생산되던 페미니즘 콘텐츠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글들이 많아짐.

- 여성 커뮤니티들의 운동 : 강남역 추모의 시작은 다음카페 '여성시대'와 '위마드'의 합작이었음. 넥슨 여성 성우 교체 시위는 '위마드'에서 시작하여 다음 비공개 여성 카페 3곳에서 음식, 물품 지원을 하였고 성우를 지지한 웹툰 작가에 대한 별점 테러 회복 운동은 '쭈빵'에서 주도함.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방법을 도모하여 온라인 운동을 일으킴

3. 이후 공동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찰의 이중잣대 수사

- 한남패치 : SNS 인스타그램에서 성매수한 남성들을 공개하는 '한남패치' 계정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1주일 안에 이루어짐.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공개하는 '강남패치' 계정의 구속은 영상이 공개됨. 소라넷 폐쇄에 10년이 걸리고 운영자 구속 공개는 없었던 것에 비교하면 남성에게 해당된 처벌은 여성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 메갈리안, 위마드 유저들 대한 수사 : 일베, 소라넷의 성범죄,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신고는 기각되는 반면 메갈리안, 위마드 유저들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이루어짐. (쫓린이 사건의 피해자는 신상털기를 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기각됨. 일베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언론 언급은 없음)

2) 온라인 사건들과 대안책

- 당사자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온라인 여성혐오와 차별적 수사에 대한 피해는 늘어가는데 기부금 마련, 대응 메뉴얼, 변호사 지원 등이 어려움. 가장 큰 원인은 당사자 인증에 있음. 사용자들은 메갈리안, 위마드 등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고, 커뮤니티 내에도 남자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피해 당사자를 어떻게 인증 할 것이고, 누가 인증 할 것인지가 문제임. 불신에 대한 과도한 인증 요구로 인해 운영자, 피해자, 사용자들 간의 피로가 증가함.

- 모금을 어떻게 하고 사용할 것인가 :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필요성은 커지고 모금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지만 모금 주최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위마드'는 사이트 개설을 위해 모금 했지만 운영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남. 최근 한남패치 공정 수사 촉구 시위는 주최자가 선결제, 후모금으로 진행됨.

- 플랫폼의 필요성 : 여성 운동의 중심점이 될 사이트가 필요함. 다음카페,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이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콘텐츠는 삭제되고 검열되고 있음.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도 어려움.

- 오프라인 조직의 필요성 : 최근 온라인 여성혐오 피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피해를 보호할 오프라인 조직이 필요함. 인증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전문적인 오프라인 운동을 전개하고, 변호사, 기자 등의 연결해 줄 신뢰있는 조직.

- 여성 단체에 대한 신뢰 회복 : 작년 메갈리아의 기부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불신으로 여성 단체, 진보 단체, 일명 '편충'으로 운동권에 대한 혐오가 있음.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감정으로 보임. 소규모 조직은 갑작스런 많은 기부금을 집행하기엔 인력이나 기획 콘텐츠가 부족함. 이러한 감정을 피드백 없이 계속 두면 왜곡된 정보들이 계속 퍼져나감. 여성 단체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대응하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최근 여성 커뮤니티는 텀블벅을 이용한 페미니즘 상품을 만들고 수익금을 여성주의 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늘어남.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재생산되기도 함.)

젠더폭력

당연한 말이지만, 성차별적 사회에 젠더폭력이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여성에 대한 폭력

○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 -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3

○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음

2.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의 좌표 찾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전국실태조사? 범죄통계? 젠더폭력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채 집계되는 실태조사, 범죄통계로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젠더폭력과 성차별을 불가분하기 때문에 젠더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그리하여, 성평등지수, 성별임금격차, 여성 국회의원 비율 · 여성 CEO 비율 ·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각종 영역에서의 여성비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함. 일상 속의 ‘여성성’, ‘여성다움’에 대한 신화 또는 강요 또한 포함

○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임

3. 무엇을 해왔는가(한국여성의전화 활동을 중심으로)

○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그 결과임.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옴.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유형별로 구별짓기보다 광의의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했을 때 여성비하, 여성혐오 등 현재까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러나 일상적이고도 치명적이기까지 한 차별적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음.
- 여성폭력범죄 법제화 노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 제정운동 및 제정 후 모니터링을 통한 개정운동. 최근에는 스토킹방지법 제정 주력. 근본적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및 국가 책무를 규정한 여성인권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사법처리를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정’과 ‘정의’를 질문하는 여성폭력근절운동: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정당방위 사건,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 등
- 명명되지 않은 여성폭력의 명명을 통한 가시화: 아내강간, 데이트폭력
- 일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 먼지차별, 여성인권영화제, 페스티벌 킥 등
-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소녀들을 위한 경제교육,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 등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가정폭력 없는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 폭력예방교육 등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악순환은 강력한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음.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출발은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며, 둘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 셋째, ‘보호’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임. 여기에 강력한 성평등 정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이에 따라 한국여성의전화는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해오고 있음. 여성인권기본법/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스토킹방지법(안) 제정,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설치·운영,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여성보호’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는 여성폭력예방정책 수립, 일상의 성평등 정착 노력 필요(공교육, 미디어 등) 등

○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더불어 여성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할 것인가 고민 필요

여성노동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¹¹⁾

1. 먼저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성노동은 뜨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에 전제된 진단에 동의. 하지만 인터뷰, 상담, 회원활동으로 접하는 ‘일하는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일터에서의 부당함과 피로에 대한 토로는 뜨겁다. 지인들을 만나도 각자의 개인사 중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일이야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개인의 이야기’로만 유통되고 있다. 왜 일까. 이유를 더듬어 보기 위해 던지는 몇 가지 질문.

○ 운동 의제 부재

— 여성노동운동의 의제란 무엇일까. ‘여성노동문제’로 주로 이슈화 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일가정양립’. 상담 사례도 이 의제들에 몰려있다. 이 의제들은 제도화된 의제들. 다른 말로 법적 권리 개념은 만들어진 의제(권리의 현실 작동과는 별개로).

— 이 두 가지 의제에 상담 사례가 몰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성희롱’과 ‘일가정양립’ 이외에는 ‘여성노동 이슈’가 없어 보이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언어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말로, 제도화 이후, 새로운 여성노동운동 의제가 불붙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 너무 큰 구조와 너무 작은 개인. 그 사이의 무기력감

— 사실 ‘여성노동’만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문제다. 높은 실업률, 양산되는 나쁜 일자리, 형태도 천차만별인 비정규직의 일상화. 이 구조 안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이 곧 여성노동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헬조선’ 담론.

— 그러나 ‘헬조선’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일터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친

11) 이 글에 담긴 고민들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권박미숙, 이가희, 류형림, 최진협, 홍연지가 함께 길어낸 것으로, 권박미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면 나가떨어지는 개개인의 풍경들.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구조와 그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감.

— 그 사이에 무언가 필요하다.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성공경험이 필요. ‘운동’이 그 성공경험이 되면 좋겠다.

○ 저항의 문화적 각본

— 이제까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온 주체는 그나마 노조.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농성과 열사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그리고 이 ‘농성과 열사의 이미지’는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 대응하려면 대안은 노조인데 열사가 되거나 농성을 할 수는 없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저항의 각본이 필요.

2. ‘여성노동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모아봅시다. 각 단위에서 만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여성노동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까.

○ ‘대답하기 어려움’이 말하는 것

— 민우회는 회원조직, 일고민상담실, 그리고 매해 활동하며 만나는 인터뷰이들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삶’이야기를 듣고 있음.

—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들에게 ‘여성으로 일하면서 힘든 점’을 물으면 답하기 어려워하지만, 그냥 일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쏟아낼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것. 예를 들어 2015년에 진행한 ‘2-30대 여성노동자들의 일 이야기’인터뷰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은 취업시장에서는 ‘남자인게 스펙’이라는 명언을 남기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채용, 승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될 것을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제외’ 경험을 이야기를 했고, 직장 내 군대문화, 애매한 여자(혹은 꼬맹이)취급에 대해 분노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일 이야기’였음. 당사자들에게는 ‘여성노동 이야기’로 언어화되지 않음.

—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 부당함의 원인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라고 진단할 확신은 없는 상태. (제도화된 언어가 있는 성희롱, 일가정양립과 대조적 현상) 성과주의 속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가’ 라는 자문 혹은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감으로 원인 진단이 수렴. 그리고 노력하거나 버티다가 소진되고.

- 하지만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이게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도. (2015년 ‘어디가서 말하겠어 : 2~30대 여성들의 일하다 겪은 불안과 뻘침 말하기대회’의 경험)

▷ 필요한 것은 ‘언어가 있는 공분의 장’ 일지도

▷ 일하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직장에서는 나를 ‘여성노동자’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진단 가능

○ ‘여자 취업’의 두 가지 차원

- ‘여자 취업’은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성희롱, 동료가 아니라 여자취급, 외모 지적질,

: 이 차원에 대해서는 문화적 해소감, 좋은 술친구 같은 사이다 액션, 무기력감을 날리는 무용담들이 필요하다.

- ‘여자 취업’은 결국 구조의 문제이다.

: 예를 들어 채용과 승진에서의 제외 경험, 성별임금격차, 그래서 결국 가게 되는 여초직종은 저임금에 긴 노동시간 혹은 돌봄노동 혹은 보조적 업무(+비정규직의 여성화).

: 이 차원에 대해서는 진짜 변화, ‘승리의 맛’이 필요하다. 결국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

3. 영감을 나눠봅시다. 그렇다면 여성노동,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위활동가로서가 아니라 여성노동운동가로서 당신은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요? 혹은 이전의 활동 경험에서 시민과 함께 뜨겁게 호흡한 운동의 경험(거대한 무엇이 아닌)이 있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구조에 항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에 대한 무기력함을 건드릴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내 일상의 이야기라고도 느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의제 제시가 필요. 결국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슈는 ‘임금’이 아닐까. 성별 임금격차. 이걸 종합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함. ‘20년도 넘은 미제사건, 63.4%의 비밀’

- ‘투사’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일상적 저항이 가능한 문화적 각본 발굴하기, 유포하기. 힘 센 여자들이 많아지기.

여성노동

김미현 (불꽃페미액션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 노동당 여성위원회)

여성노동, 뜨겁지만 뜨겁지 않은

‘뜨겁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따라, 여성노동은 뜨거울 수도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청소노동자 이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의 이슈, KTX여승무원 이슈 등 굵직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왔죠. 그렇지만,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슈는 늘 ‘노동’의 문제로만 다뤄졌지, 페미니즘이나 ‘여성’노동의 문제로는 깊이 있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니다. 돌봄노동, 청소노동, 감정노동은 분명히 젠더화된 노동인데 젠더화 되었다는 이야기나 프레임이 부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떠오르는 이유 중엔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을 마치고 사회(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느끼는 엄청난 박탈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88만원세대나 20대 비정규직 문제로 수렴될 뿐 20대 여성의 문제로 잘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노동의 문제를 여성주의의 이슈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민...)

20대의 여성노동이슈, 60대의 여성노동이슈

저는 노동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또 하필 돌봄노동자 관련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인, 베이비시터 같은 일을 하시는 50-60대 여성들의 노동을 ‘돌봄노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돌봄노동은 어디까지가 공식적인 노동인지 어디까지가 추가적인 개인의 서비스인지가 막연합니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서비스이용자 혹은 보호자가 청소, 김장 담그기 등 가사를 맡기거나, 간호사들이 간병인에게 간병업무 외 청소나 의료보조업무를 떠맡기는 걸 문제라고 여깁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임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일을 하면서 처우, 호칭문제, 무분별하게 맡겨지는 가사노동에서 더 많은 차별을 느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나 제 주변의 사회초년생집단의 여성들도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확실히 주어진 업무 외에 부여받는 일이나 기대되는 (부당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술시중을 요구받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요구되는 술 따르기나 감정노동들이 있고, 올해 초 프랜차이즈 영화관들의 여성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용모기준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영업직/서비스직 노동자들 역시 화장과 복장에 대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제약과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엔 한 공장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무릎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복장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여기에 순응할 것인가, 바뀌나갈 것인가, 혹은 뛰쳐나갈 것인가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돌봄노동자분들의 경우엔 비슷한 분야에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의 지인들은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 삶의 경로를 찾기도 하더라구요.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여남 임금격차가 문제지만 한편으론 임금격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성들의 직장 내 비가시화된 노동과 성차별의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야를 넘나드는 여성노동자 투쟁은 불가능한가?

분야를 가로지르는 여성주의 투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연계하여 감정노동 파업을 해본다거나, 돌봄노동자들과 추석명절을 앞둔 기혼여성들이 가사노동 파업을 한다거나. 대책 없는 생각일수도 있지만, 여성노동의 이슈가 개별 사업장이나 노동분야의 이슈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야 '여성노동'으로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노동

여성혐오와 노동혐오

오은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미조직여성국장)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의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여자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이 사실상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 한다”

— 한겨레 칼럼 “여성혐오라는 말의 번역론”,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여성혐오와 노동혐오

페미니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겁다는 건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범죄가 ‘혐오냐, 아니냐’를 넘어, ‘여자다움’, ‘성역할고정관념’에 까지 논쟁의 지점이 확장되고 있다.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여자,남자다움’, ‘성별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페미니즘 논란 속에 여성노동은 조용하다.

‘여자다움’, ‘성별고정관념’이 페미니즘 논쟁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할 때,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구조 및 여성노동 차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 그럴까?

한겨레 칼럼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자.

“여전히 바뀌지 않은 자본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에게, 인턴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노동자에게,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청소년(녀)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성실·근면함’이 사실상 모두 ‘노동혐오’에 해당 한다”

00수화통역센터 장애인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성희롱

2015년 9월 00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수화통역일을 하던 농아인이

같은 농아인 상급자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온 것이다. 농아인은 비정규직이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사실상 성희롱 사실을 내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되었다. 노동부는 성희롱 판결을 내렸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잇따른 판결에도 조직 내 2차 가해는 멈추지 않았다. 손 장애를 이유로 업무능력이 저하된다는 논리, 성희롱피해자가 농아인협회 내 징계처분당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양보 강요, 명예실추를 이유로 한 사과 요구 등. 피해자는 1년의 시간을 2차가해에 굴하지 않고 한국농아인협회를 상대로 투쟁했다. 그 결과 △협회장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조사위 구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해고기간 중 임금 분할지급 등을 합의하며 지난 9월 1일 복직했다.

장애인·여성·비정규직·노동자!

성희롱 피해자 앞에 붙은 수식어는 사회적 약자의 표본이고, 빈곤 악순환의 집합체이다.

거기에 ‘성희롱 피해자’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다.

그녀가 홀로 1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면서 바꿔낸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청인, 농인 가릴 것 없이 무권리 상태였던 수화통역센터 노동자 권리의 중요성, 의사소통과정에서 빚어진 농인들 간 스킨십 또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협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중요성 등이다.

00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비정규직·노동·인권·노동상담소·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연대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사회적 약자의 표본, 빈곤 악순환의 집합체가 지 풀에 꺾여 포기하지 않도록 연대하는 것.

집단적·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의 ‘여성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혐오 사회에서 여성노동이 겪는 수많은 의제를 페미니즘 카테고리에 잘 엮어 낼 수 있는 연대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여성노동

임혜숙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노동

-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임금노동자 840만명 가운데 40%가 비정규직임.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
- 여성비정규 가운데 시간제 비율은 47.7% (1년 동안 10% 증가)
- 남성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5.4%
- 사회안전망 4대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가입률 3-40% 대임),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노조 가입률 2.8%
-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비율 32%, 한국노총 18%.

==> 비전형노동, 불안정한 노동, 차별적 노동,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노동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진입 조차 어려운 조건 (취업은 시민권을 얻는 일)

(2) 여성노동 이슈에 대한 생각들

<차별금지 성평등 실현>

- 2017년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이 됨. 제도화가 현실의 차별 해소에 기여했는지 평가가 필요한 대목임. 사실 현실에서 적용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취업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원종 복지관 사례), 40대 이상 여성사무직 자진퇴사 강요(현대중공업 사례), 금융권의 여성노동자 구조조정 사례, 고용기회 자체가 여성의 일로 한정되는 것 등등.
- 성별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건수 550건 가운데 성차별 관련한 건은 3-4건에 불과함.

<일가정양립 지원대책>

- 일에서는 재생산이 고려되지 않고, 가정에서는 생산과 노동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 대책은 재생산의 위기를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여성인력 활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 임금노동에서 여성노동력을 일시적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재생산의 역할과 책임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정책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보육지원금을 늘려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강제하라,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하라는 요구는 결국 여성을 이중노동 안에 더 깊숙이 가두거나 어느 하나를 포기하도록 하게 된다.
- 수십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양산으로 나타남.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노동의 요구인가? 열악한 여성일자리의 현실이 가져온 결과이다.
- 여성들이 최임투쟁을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현실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저임금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짐. (98%가 노조를 갖고 있지 못한 여성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인상 협상)
- 조직된 노동자들은 최임투쟁을 시혜적 연대의 문제로만 생각함.

<노동시간 단축>

- 고용관계 안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 직장에서 퇴근은 가정으로의 출근이라는 구조속에서 있는 여성노동에 맞춰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시간 단축은 생산과 재생산을 포괄하고, 성별화를 고려하면서 재구성?

(3)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필요

- 여성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부족
- 노동 의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 필요

- 기본소득은 여성노동에 긍정적인가? 법정 혹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과 재생산을 포괄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강고한 가족임금제 허위의식을 깰 수 있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혹은 차별해소를 위한 구조적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시대 미래의 일자리 관련한 대책들이 여성노동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일상적 포럼이나 논의 테이블

(4) ‘당연’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물음표 달기

노동은 여러 경계로 나뉘어 있고, 그리고 그 경계는 곧 위계가 된다. 생산과 재생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노동 시간(장시간/단시간), 노동시장(공식/비공식), 업무의 ‘중심성이나 숙련도’, 임금수준, 등등... 이러한 경계는 공식·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어지고 이 모든 경계들은 성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경계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 되지만 그 ‘자연’이나 ‘당연’ 또한 누군가의 이해일 뿐이다.

자연과 당연한 것으로 가정되었기에 여성의 노동은 많은 경우 지불되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다. 성별화를 정당화하는 "여성 고유의 일"이란 전제의 뿌리는 아주 깊고, 여성이 자기를 주장하고 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 또한 견고하다.

노동시장 안에서의 차별과 위계화 문제를 넘어서면서 생산/재생산 전반을 교차하는 여성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드러내고, 당연한 일로 가정된 ‘전제’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생산인가? 왜 여성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생산이 아닌가?

여성정치세력화

20대 총선 그 후 : 다시, 페미니스트 정치¹²⁾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총선 비평-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뜻밖의 결과? 우경화 된 정치 지형

총선을 치르고 한 계절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 녀 달 가량 기간이 건만 언제였던가 싶게 아득하다. 변화하고 익숙한 거리 한 켠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무참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치·정당 역시 무관하지 않게 얽혀 있다. 선거 시기에는 후보자와 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정치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시민들은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선거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정치라는 연장선 위의 한 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4.13 총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젠더관점에서 돌아보려 한다.

20대 총선은 ‘뜻밖의 결과’였다. 선거 전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낙승을 전망한 이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정치적 변화를 바라던 이들은 총선 결과를 두고 여당의 패배에 안도하고, 유권자의 승리로 해석하는 분위기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좀 차분히 비판적으로 돌이켜봐도 좋지 않을까. 20대 총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남긴 의미는 무엇이었나?

2004년 개원한 17대국회 당시 진보정치가 제도권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해 보수-중도-진보로 나뉜 ‘천하삼분지계’를 말하던 찰나와도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사회 정치보수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3당구도’가 짜여졌다. 원내의석을 확보한 정의당조차 가시권 밖으로 밀려났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를 보면, 철도민영화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거 징계한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5번), 정부의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청년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7번),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등장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9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시체장사’ 운운했던 김순례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15번) 등 (시민)사회활동을 기반으로 당선권에 포함된 여성인

12) 출처: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2016년 가을호, Vol.50.

사들의 성향이 보수에서 극우로 이동하였음도 감지된다. 페미니스트이자 사회비평가인 나옴 울프가 경고한 ‘페미니스트의 얼굴을 한 파시즘’과도 다르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피억압자의 편에 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이 정말 억압적인지를 매 순간마다 냉철하게 검토되어야 한다.”¹³⁾

게다가 동성애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혐오의 정치를 생산해낸 기독교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3% 기록해 혹시나 3%를 넘겨 한 명이라도 기독교자유당 당명을 달고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개표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정책선거 자체가 실종되기도 했지만, 정책적인 측면의 젠더이슈는 삭제된 채 거의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각자도생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결과는 기존 한국정치의 이방인이었던 노동자와 여성이 제도권에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반공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에 기초했던 권력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김동춘, 2004)¹⁴⁾으로 평가되었고, 여성정치세력화 측면에서도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2012년, 2016년 총선 결과 분석마다 이어지는 여성약진이라는 평가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2016년 총선에서 여성은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25명 총 51명(17%)이 당선되었다. 직전 선거인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 총 47명(15.7%)이 당선된 것에 비해 늘어났고, 매 선거마다 여성당선인 비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주요 거대정당들이 후보 공천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행태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7석이나 줄어든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여성당선인이 늘어나면서 이제 ‘여성의원=비례대표’라는 도식도 해체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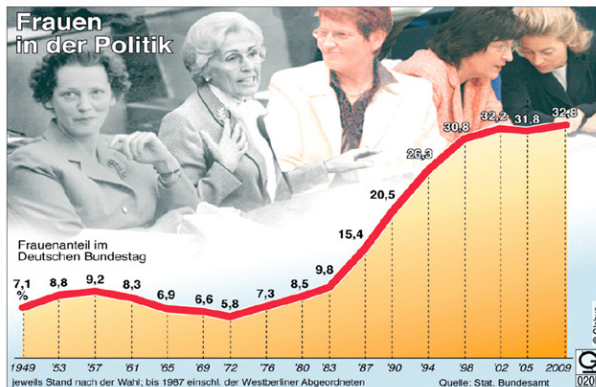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대표성’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진 20대총선에서 만들어진 이 같은 결과는,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각 정당의 의도적 노력이라기보다 여성후보자 각자의 능력과 고군분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온

13) Naomi Wolf. “Fascism with a Feminist Face”. MAR 31, 2014.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aomi-wolf-examines-the-rise-of-women-to-leadership-positions-in-major-far-right-european-political-parties?barrier=true#y1u8P4b9V6FP940v.99>

14) 김동춘(2004), “17대 총선과 한국정치: 평가와 전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포럼 발제문 (200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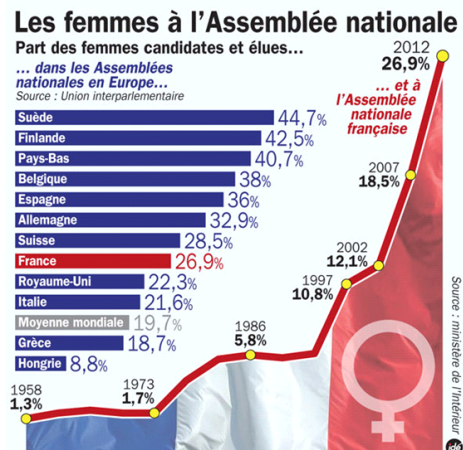
당하다. 실제 거대정당들은 지역구 30% 여성공천 노력조항은 지킬 생각도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당선가능권 경계인 15번과 16번의 성별을 뒤바꿔 공직선거법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까지 여기는 뻔뻔함을 보이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여성국회의원 증가 추이]



↑ 독일 의회 여성참여비율 변화 추이

프랑스 의회 여성참여비율 변화 추이 →



* 자료출처: 김민정 외, 『여성정치할당제』

법적이든 자발적이든 정당이 여성정치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임계치인 여성정치참여율 30% 수준까지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법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17대국회 13.7% 이후 세 차례의 총선을 거친 12년 동안 겨우 4% 남짓 늘어난 것이 전부일 만큼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확대조차 더딘 거북이 걸음이다. 또한 여성당선인 수치를 바라보는 초점을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가 아니라 전체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로 조금만 이동해보면, 20대 총선 유권자 성별 구성비가 여성 50.5%(21,246,578명) 남성 49.5%(20,853,820명)로 여성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당선자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83%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의 전형적인 유형은 “남성, 평균 연령 55.5세, 전직 국회의원, 재산 41억원, 학력 대학원졸업”으로 요약된다.¹⁵⁾ 그 외에 지역구 여성당선인의 경우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도 여전한 한계로 지적된다.

15) 경향신문, “4.13 선거혁명 당선자 분석”, 2016년 4월 1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10015&code=910110

여성유권자의 변화, 여성주의투표의 전망

7월초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20대총선 투표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 투표율은 여성 57.4% 남성 58.8%로 남성이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대총선과 비교해 보면 여성 투표율 증가폭(53.1%→57.4%, 4.3%p)이 남성 투표율 증가폭(55.7%→58.8%, 3.1%p)보다 컸다.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19세 및 20대 후반부터 40대 사이에서는 여성이 높았고, 군복무 시기라 할 수 있는 20대 전반과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특히 20대 전반(40.4%→54.2%)과 20대 후반(39.5%→52.6%)의 여성투표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총선 결과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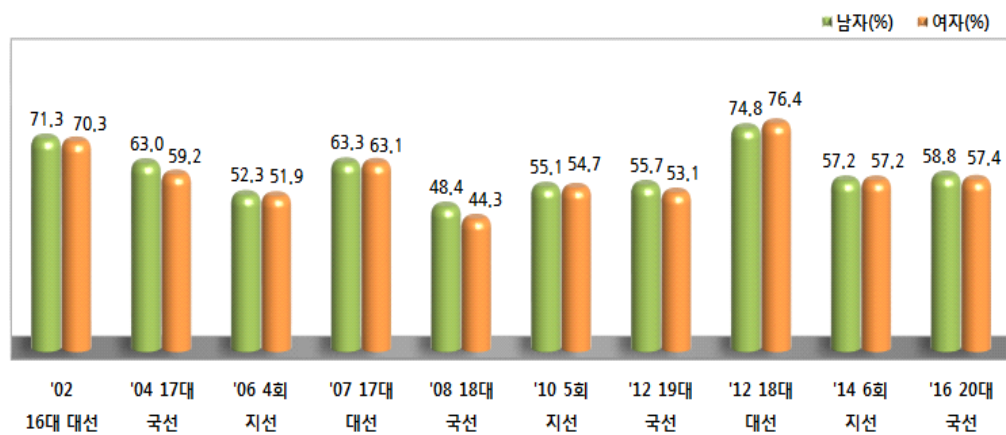
젊은 여성유권자의 적극적 태도 변화는 예상된 바이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총선 전 소라넷 폐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진선미 국회의원을 응원하며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준 사례도 그렇고, 국회에서 9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묶은 책의 구매자 중 78.8%가 여성이고 그 중 절반 정도인 37.5%가 20대 여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이제 허튼 소리가 되었고, 그야말로 정치 고관여층 집단으로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지만, 1997년 미국 대선 빌 클린턴의 당선이나 1997년 영국 총선에서의 노동당 승리에 여성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다만 유권자 투표율 분석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최근 총선에서의 투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택하도록 하기 보다는 무엇에 반대하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진 구도 자체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우리가 총선을 치르는 동안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튼과 버니 샌더스가 결합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었는데, 두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여진 최초 여성대통령후보의 의미, 여성 내부의 세대갈등 등 ‘여성투표(women’s vote)’와 ‘여성주의투표(feminist vote)’의 각축은 제법 흥미롭다. 힐러리를 지지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지옥에는 여성을 돕지 않는 여성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¹⁶⁾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고, 샌더스를 지지한 영화배우 수잔 서랜든은 이 발언에 대해 “나는 보지로 투표하지 않는다. 단지 후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리라 여기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I don't vote with

16) The New York Times Company, “Gloria Steinem and Madeleine Albright Rebuke Young Women Backing Bernie Sanders”. 2016년 2월 7일자, http://www.nytimes.com/2016/02/08/us/politics/gloria-steinem-madeleine-albright-hillary-clinton-bernie-sanders.html?_r=0#

my vagina. It's so insulting to women to think that you would follow a candidate JUST because she's a women.)”¹⁷⁾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국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성유권자 투표율이 남성유권자 투표율을 앞질렀고, 그 선택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일면 ‘여성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번 언젠가는 ‘여성투표’를 넘어 ‘여성주의투표’로 진화해가는 국면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선거의 성별 투표율 변화]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20대총선 투표율분석 보도자료(2016.7.4.)

성별화 된 정치공간, 남성의 얼굴을 한 청년정책

숫자로 드러나는 여성정치참여 외에 성별화 된 선거공간에서 여성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의 전형에서 벗어난 ‘젊은 여성 후보’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등 공직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문제들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유력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문제적 발언도 일일이 열거하기에 끝이 없다. “애 많이 낳는 순으로 비례대표 배정”해야 한다거나(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 우리 여성분들이 조급하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등의 발언이 낯설지 않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의 선거홍보캠페인을 벌이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 갈 길은 여전히 멀다.

17) Susan Sarandon. 2016년 2월 17일.

<https://twitter.com/SusanSarandon/status/699997236500021248>

선거 이후에도 성평등 이슈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양)성평등교육의 제목은 “꼰대 OUT! 아재 OK!”가 고작이었고,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이라며 홍보한 자리에서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성희롱 발생 시 당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나? 라는 강사의 질문에 “참아야죠”라고 대답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한편, 20대총선은 세대의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 당선인들의 연령대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50명, 50대 161명, 60대 81명, 70세이상 5명, 최고령은 75세(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를 기록했다. 정치주체로서의 청년정치인이 이전에 비해서도 더 희귀해지고 있다.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청년 정치인'은 실종됐다.” 핵심적으로 다뤄졌다고 하는 청년정책도 여성청년의 존재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남성의 얼굴을 한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 전제되었고, 각 정당들 역시 낮은 젠더감수성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면적인 청년정책을 답습했다. 정의당 ‘중식이밴드사태’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보수정당의 여성정치는 불가능한가?

여성들은 어디에나 있고, 현실세계에서는 보수적인 기득권정당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보수정치가 성평등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정치를 통한 성평등 사회 구현은 요원하다. 그렇기에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 바로 보수정당 내 ‘여성정치의 부재’다. 새누리당의 경우 20대총선 여성후보자 공천 비율이 전체 248명 중 16명으로 6.5%에 그치고 있고, 18대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당 대표가 여성이었던 시절에도, 지금 여성대통령이 속한 정당임에도 그러하다.

새누리당 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김을동 전 의원은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고 말해 (솔직하고 현실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었고, 총선 이후 지난 8월 9일에 개최된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는 여성세력화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비례대표 초선 최연혜 의원이 여성 몫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최근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 현황]

정당구분	18대국회 (여성 / 전체)	19대국회 (여성 / 전체)	20대국회 (여성 / 전체)
보수여당*	18 / 197	16 / 230	16 / 248
	9.1%	7.0%	6.6%
제1야당**	15 / 245	21 / 209	25 / 234
	6.1%	10.0%	10.7%

*18대국회: 한나라당, 19대/20대국회: 새누리당,

**18대/19대국회: 민주통합당, 20대국회: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내 여성정치 사례로는 영국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정치가 여성화되는 과정은 정당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동되고 있는데, 보수당은 여성정치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1992년 6%, 2001년 8%, 2010년 15.7%, 그리고 2015년 20.5%로 꾸준히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총선에서 세 번째 패배를 경험한 이후 ‘당의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가치를 내세운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성 대표성 증진과 여성의제의 정책적 통합을 통한 정당의 ‘여성화’가 정당의 현대화를 위한 핵심적인 축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치의 여성화의 과정에서 부상하고 있는 ‘토리 페미니즘’은 여성 대표성의 중요한 논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이진옥, 2015)¹⁸⁾. 토리 페미니즘 영국 보수당의 전신이자 별칭인 토리당(Tory Party)에서 나온 말로 보수당 내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여성정치인들의 흐름을 일컫는데, 브렉시트(Brexit) 이후 새롭게 수상에 취임한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이즈음 토리 페미니즘의 좌장격이라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할지에 관해 대처 전 수상과는 또 다르게 주목해 보아도 좋겠다.

잔인한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 진보정치의 리트머스가 된 페미니즘

기후위기로 지구가 달궈지면서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있다. 지난 7월은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로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한다. 날씨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페미니즘 이슈로 뜨겁다. ‘메갈리아’로 상징으로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혐오살해와 강남역10번출구로 분출된 여성들, 그리고 ‘왕자는 필요 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오래된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한 장이 계

18) 이진옥(2015), “‘정치의 여성화’와 젠더정치의 동학: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5권 제3호

기가 된 논란까지, 언제건 젠더차별이 없었겠냐만 바야흐로 폭발하고 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논평과 당 차원의 논평철회가 촉발한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 ‘중식이벤트’사태도 그렇고 여전히 젠더 의제를 제대로 다루는 데 미숙한 진보정치를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느 대목에서는 잊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혼’을 다시 떠올리게도 하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계급을 넘어 젠더가 최종심급이 되어버린 건지 입맛이 씹쓸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 정의당 젠더TF를 맡은 김세균 공동대표는 “논의의 프레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결국 상황을 “친메갈이나 반메갈이나”로 몰고 간 것은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 탓이 크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대중정당이건 정의당이 스스로를 ‘진보정당’으로 위치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하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이런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는, 무엇에 대한 진보인가를 항상 새롭게 질문해야 한다(전희경, 2008).¹⁹⁾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심상정 상임대표의 태도에 아쉬움이 크다. 고민이 많으실 줄은 이해하지만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젠더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진보정당 여성리더십으로서의 몫을 자임하기보다 대변인에게, 여성위원장에게, 그리고 나경채 김세균 두 공동대표에게 계속 역할을 미루고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모습이 조금쯤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의 “이상하게도 여성이 여성을 안찍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 민주노동당은 달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철저한 여성주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진보를 표방하면서 뒤에서 여성주의를 피곤해 하는 가짜 여성주의 정당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던가²⁰⁾. <민주노동당의 여성주의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성주의를 내걸고 성공한 정치인이 없다는 말처럼 당내에서조차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 또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자기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불편하다. ... 그러나 진보는 불편한 것이며, 불편한 것 때문에 여성주의를 버리자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자기 배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²¹⁾. 심상정 대

19) 전희경(2008),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 레디앙, “권후보 여성 관련 발언 유감이다”, 2007년 9월 14일자, <http://www.redian.org/archive/18947>

21) 레디앙, “정파에 갇히고 계급에 동원된 '여성'”, 2007년 6월 12일자, <http://www.redian.org/archive/17977>

표가 생각하기에 과거 민주노동당과 지금의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것일까?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꺼내들었던 시절 심상정 후보가 "마초리더십 극복할 여성리더십이 필요"²²⁾하다고 했던 발언을 나는 옆 자리에 앉아서 들어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 마초리더십을 극복할 여성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메갈리아 이후의 페미니스트 정치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말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지금은 ‘예의바른 저항’을 요구하며 메갈리아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혐오의 원본을 폐기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러링 이후의 페미니스트 정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여성주의인가?’를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

새로운 운동은 기존의 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단절하고 대척점에 서서 스스로를 정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새로운 흐름인 ‘인터넷 페미니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성은 하나가 아니고 모두 단일대오를 형성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운동의 역사를 삭제하거나 기존 운동을 화석화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접속’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관계맺기가 고민되어야 한다.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에 대한 저항으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중 일부에서 제안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정당’ 창당 논의가 매우 흥미롭다. 다음번 총선에서 ‘페미니스트 정당’ 소속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22)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마초리더십 정당과 대통령 극복할 여성리더십 필요”, 2012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4017

여성정치세력화

정당정치와 여성주의 이슈의 관계

곽빛나 (녹색당당원)

저는 2011년 12월부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시민사회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 8월 밀양송전탑반대 투쟁을 위해 밀양으로 파견되어 2014년 6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밀양송전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할매’일 겁니다. 지금은 할매합창단이나 할매들이 단상위에 올라 발언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밀양투쟁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밖에서 싸우는 것은 여성분들이나 회의를 하면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농촌은 여성이장은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밥이나 봉사활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송전탑 투쟁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집안일에 맡일까지 도맡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해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한 어머님의 말은 싸움에 남성들이 나서면 충동적이고 확김에 저질러지는 일들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남자들이 빠지고 여자들이 앞장서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싸움에 나서는 여성들은 중요회의에 빠지거나, 빠지지 않더라도 발언은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실제 투쟁현장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니, 몸의 기억이나 실제로 필요한 언어에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여성들이 경험을 이야기 하기 위해 마이크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도 정치가 이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경험을 공유하고 연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여성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남성들이 허락하는 운동에 한정되어있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부이거나 여성 홀로 사는 가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을 남성들이 시작하고 여성들이 따라나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포기할 경우 동반으로 포기하게 되는 지점 또한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분야로 여성의 외연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사람들이 경청하며 여성의 발언을 신뢰하는 언어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여성,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숭고하고 희생의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데 이걸 잘 활용했던 싸움이 바로 밀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형화 되어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서 다른 모습의 여성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작갑 녹색당 선거사무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구 안에서 발언하는 것에 위협을 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당연설회나 후보자 지지연설회를 할 때마다 낯섦의 눈빛과 직접적인 비난에 놓이는 상황을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난을 하는 이는 남성이며, 같이 있던 남성운동원이 제재를 하면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에서도 단순히 울동과 쇼맨십이 요구되는 일은 여성들이 하며, 선거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늘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시장에서 힘겹게 장사하는 할머니 역할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많이 비난받았던 지점은 바로 핵발전소나 기후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였습니다. 여성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며, 쉽게, 무례하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신분으로써 약자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와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핵발전소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때는 어김없이 샷대질 또는 고성을 지르며, 어깨를 친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내 곁에 있던 남성이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군대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조금 늦은 시각 녹색당 정책을 담은 현수막을 달고 있을 때였습니다.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에게 손짓하더니 알바냐?라고 물어봤던 일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얼마 받고 일하냐며 날도 추운데 집에 얼른 들어가라는 친절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정당현수막을 달 때 위치라든지, 공유

를 위해서 관계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여성이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윤진 후보 현수막을 보고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관심사이고, 남성으로 무게가 이어지면 저에게는 어김없이 아내 혹은 여동생으로 아니면 알바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성이 몇 퍼센트가 특정분야에서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에게 거치지 않고 세상에 나와야하며, 그들이 원하는 언어가 아닌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탈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살인 사건을 통해 여성운동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난 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의 추모와 그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그러진 사회를 살고 있구나라는 인식과 함께 나만 예민해서, 나만 재수가 없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갈리안 옹호로 성우 교체사건과 시사인 절독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굉장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사상검증 같은 너 페미니스트지, 메갈리안이니? 라는 질문을 받아야했고 진짜 페미니즘이 무엇이나, 과격한 페미니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지역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나 심도 있는 논의는 배제된 채, 개인과 개인의 말다툼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다지도 무섭고 두려운데 그리고 이 사건들이 풀리는 과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역에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여성정치세력화

류은숙 (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

지난 9월 3일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정의당 문예위 논평 발표 이후 당 내논쟁과 관련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발표된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평이 나온 후 발생한 당 게시판 논란 및 일련의 후속 조치들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의당의 여성주의 논쟁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중식이밴드” 섭외 과정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중식이밴드”는 정의당이 2030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홍보 과정에서 섭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중식이밴드를 섭외하기 이전부터 ‘여성혐오 밴드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여파로 당 안팎으로 중식이밴드 섭외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식이밴드”를 섭외하는 것이 ‘당 정체성에 적절한가’ 하는 제기에서부터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2030대 여성들의 시선이 배제되었다’는 비판까지 논쟁의 지점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위원회와 여성당원들을 향한 당원게시판에서의 비난과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도 당원게시판과 일부 지역위원회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일부 당원들의 무차별적 발언들로 인해 진보정당의 성평등 가치 훼손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7월 18일 발표된 문예위원회 논평 이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진보정당의 여성주의를 부정하는 위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상황을 두고 정돈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논란의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여성주의와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의식과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지금 현재 진보정당의 여성주의가 처한 지형

- 1) 진보운동의 위축, 정체성 혼란
 - : 위기의식으로 인한 또다른 조직보위론
 - : ‘해일과 조개’인식 여전히 존재
- 2) 진보정당
 - : ‘정당정치’에 대한 보수적 해석(‘정무적 판단’)
 - : 형식적 조직논리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보적 가치에 우선하는 경향성
- 3) 협상력을 잃은 당내 여성주의 세력
 - : “발화불가능”
 - : 권력과 일상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결과
(예, 중식이밴드 섭외 과정, 당의 문제적 입장서 발표 과정 등)
- 4) 활동가 재생산문제
 - : 기존 여성주의 세력 유실
 - : ‘여성주의’가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유효하며 매력적인가?

2. 정당정치와 여성주의 이슈의 관계

- 1) 새로운 물결과 전선 성립
 - 시대의 변화, 세대의 변화, 행동방식의 변화
- 2) 젠더 이슈에 대한 진보정당의 입장을 둘러싼 논쟁 재현 가능성 높음
- 3) 당내 여성주의 집결, 정치세력화 요구 높아짐
 - 9월 18일 확대간부 워크숍
 - 이후 세력화 고민

3. 여성정치세력화

- 1) 결국은 협상력을 갖는 것이 핵심!
 - 체계의 변화,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생취하려는 전략이 필요
 - 결국 정당 안에서의 힘과 영향력에 승패가 달려있다.
- 2) 페미니즘을 진보진영 전체의 화두로 제기할 때
 - 흔들리고 있는 진보진영의 여성주의, 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
 - 각자가 아닌 총체의 힘으로!
- 3) 새로운 신진 여성주의 활동가 양성과 확대 절실하다!
 - 당내 여성주의 강화를 위한 집중적 노력 필요
 - 이를 위한 여성운동 전체의 고민과 대안 필요.

여성주의 문화운동

달리 (문화기획달)

문화기획달 소개

“삶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지리산 자락 마고여신의 생명력과 사랑을 창조성으로 꽃피우는 여자들의 즐거운 작당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서 2014년 1월 1인 기획사로 시작. 2015년 가을부터 달리, 명심, 자정 세 명의 여성이 함께 활동하며 지역여성문화단체 겸 소규모출판사로 운영.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획, 페미니즘 캠페인, 단행본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

*대표사업: 계간지 <지글스(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 발행, 지리산 여성전용 창작생활공간 <살롱드마고> 운영, 아트팀 <디자인살롱> 사업

#1

문화기획달의 활동 지역인 전북 남원시 산내면은 전국에서 귀농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한곳으로 귀농 인구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농촌 마을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마을에 자율적인 동아리가 50개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활동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지역의 이러한 분위기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문화기획달이 지금과 같은 활동을 펼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문화기획달은 농촌 여성들의 삶을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활동으로 드러내고, 소통하고, 풀어가는 중입니다. 공동체 문화와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농촌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

문화기획달의 주요 매체는 문화기획달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고 계절마다 발간하는 잡지인 <지글스>입니다. <지글스>는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의 줄임말로, ‘생활밀착형 B급 교양문예지’라 소개합니다. ‘B급’이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글스>는 ‘지리산 주변에 살며 글쓰기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잡지입니다. 글쓰기는 문화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은 농촌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창작방법이며 특히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발화의 기회’와 ‘치유의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과 개인의 감수성을 담은 책을 꾸준히 펴내는 동안 문화기획달의 활동과도 연계되면서 <지글스> 내에서도 여성 의제가 점차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의 풍경이 담긴 목가적인 에세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페미니즘, 여성노동, 성매매, 퀴어 등 더 다채로운 이슈들이 ‘개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담겨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글스>의 고정필진은 열다섯 명 내외로 현재 열한 번째 책을 준비 중이며 작년부터 정기구독 신청을 받아 130여명이 매호 받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글스>는 지역 여성들 개인의 일상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 작가가 아닌 평범한 여성들이 글,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지글스>는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필진들 역시 글을 통해 서로를 살피고 소통하며 이웃사촌을 넘은, 단단한 연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3

문화기획달은 여성단체로 출발한 조직이 아닙니다. 문화기획달에서 기획하거나 제안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 지역 여성들이었고,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더 잘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 치지 말자”)을 진행하였고, 지역 내 젠더문제와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커뮤니티가 좁고 신상이 다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을 선택해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 콘텐츠들이 바로 글과 그림, 연극 등 창작물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성차별 사례로 만든 단막극과 만화를 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단박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방식 또한 중요함을 이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예술’을 주제로 마을 여성들과 함께 미술과 연극, 문학 등 각 장르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욕구, 배움에 대한 갈증, 창작의 꿈을 가진 여성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연말에 전시회와 공연, 포럼 등으로 결과물을 낼 예정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가 담긴 작품을 하나씩 내놓는 것만으로도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기획달에서는 앞으로도 농촌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터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지하고 싶습니다.

#4

(이 단락은 단체의 입장이 아닌 글쓴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성주의 문화운동’은 저에게 아직 낯선 단어입니다.(달의 다른 활동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이라는 말이 솔직히 좀 지긋지긋 하기도 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농촌에 와 다시 새로운 여성단체를 꾸리게 되어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처음 도시를 떠나고 농촌의 질서와 분위기에 적응하려 수년간 노력했으나 그 노력은 늘 실패했고, ‘나만의 놀이터’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기획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여성들과 계속 재미있는 일들을 도모하게 되었고 새로운 동료들과 공간이 생겼으며 이제는 지역 안팎에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받는 것이 어리둥절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농촌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사는 동안 안전하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와 ‘문화’는 저와 떼어 뗄 수 없는 인생의 주제이며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운 좋게도 문화기획달 동료들 모두 여성주의적 감수성과 특별한 재능을 모두 가진 일상예술가들이어서, 함께 어떤 일을 벌여도 ‘여성주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여성주의 문화운동

김신현경 (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멤버)

1. 자신의 현장활동 간략 소개 후, (본인의 활동현장을 통해) 어떠한 현실에 대해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는지?

19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을 할 때부터 ‘문화’를 통한 여성주의 확산에 관심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를 통해 다른 여성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대학에서 여성주의 매체 <두입술>을 만들고, 그 곳에서 글을 썼으며, 대학 졸업 후 멤버들이 여성주의 웹사이트 <언니네>를 만들 때 힘을 보탰다. 그 곳에서도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다. 이후 대학원 여성학과에서 여대생들의 연애 경험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1990년대 이후 한국 미디어 산업의 변동과 연예인의 존재 양상 변화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공부 관심사도 계속 여성주의 문화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셈인데, 변화가 있다면 ‘문화를 통해 다른 여성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상품화된 문화산업의 단면들’로 그 초점이 이동한 데 있달까. 초점 이동에 따른 괴로움(?)을 상쇄하고자 2007년 친구들과 함께 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를 만들고 이 곳에서 다큐멘터리 <모래>(2012), <왕자가 된 소녀들>(2013), <이태원>(2016)을 기획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상품화된 문화콘텐츠는 제기하지 않는 여성주의 시각의 젠더/섹슈얼리티 이슈들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왜 특정한(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문화매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나타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요?

글은 내가 선택한 매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나와 친구들이 접근가능한 영상형식이었다. 다큐멘터리는 무엇보다 협동작업이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시각을 다듬고, 다른 사람들과 민주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다들 영화만들기가 곧 삶이라고 말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3. 문화적으로 여성주의를 확산하는 것의 의미(의의), 어려움,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에 비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상품화된 문화콘텐츠, 자본화된 문화산업 내부의 것이 아닌 경우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성주의 문화운동은 자본화된 문화산업, 남성중심적 제작과정과 문화콘텐츠 모두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4. 여성주의적 문화운동이 넘어야 할 장애는 무엇이고, 또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3과 동일

여성주의 문화운동

류희선 (페미디아)

제 소개를 드리자면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페미디아 게임팀에서 배경을 그리고 있고 올해 쿼퍼레이드에서 누드톤의 상의 위에 젓꼭지스티커를 붙이고 행진하는 <Free the Nipple>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생리축하카드 제작이나 변태그리기 등을 기획하고 있구요.

사실 저는 성 소수자라는 특수성이 있어 척박한 이성애 중심 문화 시장에서 폴 한포기 동성애 콘텐츠를 찾아다니고 바래오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보니 많은 콘텐츠들이 이성애 중심 일 뿐 아니라 남성 중심적이라고요. 그 매체가 대중적 일수록 특히 심해요. 그렇게 답답함이 확장되어서 앞으로 남자의 바람이나 억압이 개입되지 않은, 여자와 소수자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결과물에 공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문화 매체를 찾던 중 막 스타트업 하는 페미디아를 만난 거죠.

들어와 보니 실제로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슷한 문제의식, 즉 '내가 보고 싶은 영상 하고 싶은 게임 내가 직접 만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활발히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제작 중인 게임을 간략히 소개하면 슈팅게임인데 파괴해야 하는 장애물이 '딸'-'언어' 인거예요. 주인공은 24살 취준생(취업준비생). 배경은 대학 내에서 달리면서 여러 남성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던지는 성 차별적 농담, 고나리질('관리'+ '~질'이 결합된 변형어)에 단호한 말로 반격 하는 것이 베이스예요. 그리고 게임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페미니즘 책 아이템을 먹으면 페미력이 오르고 페미력이 꽉 차면 보지못을 입은 보랑캐화 버프를 받는 식이에요. 일단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너무 즐겁고 그간 성차별로 인해 쌓여온 답답함 등이 해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게임을 꼭 만들어서 더 많은 여자들이 이 긍정적인 기분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게임 속에 성차별적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여성 캐릭터들은 특정 부위가 강조되어 있거나 정말 어린애이고, 또 플레이어가 여자일 경우 게임을 잘하던 못하던 여자라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반대로 남자들의 실제 연애 대상으로 환대 받거나 하죠. 이런 차별들이 기분 나쁘다 말하고 싶고, 이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또 이런 마음들을 모아 여성주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더라고요.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성주의가 대중문화에 녹아드는 방향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친숙한 매체를 통해 보

다 많은 사람에게 가 닿을 수가 있고 두번째로 소비자의 감성을 건드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식의 작용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대표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이러한 페미니즘 화두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공식 매체와는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로 얼마 전 제지인이 여성의 자위 방법을 귀엽고 단순한 그림으로 풀어낸 '보지 자위책'을 모 행사에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 판매 불가 처분을 내렸고 그 이유가 '행사장에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사에서 여기가 유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사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낼 공산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성적으로 즐길 권리의 행사를 말하는 콘텐츠가 동성애 콘텐츠는 무조건 청불(청소년 관람 불가) 처리 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보수 매체로부터 끊임없이 배제와 견제 당하고 있음을 느꼈고 때문에 이런 담론들을 주류로 끌어 내는게 중요 과제라 생각합니다.

페미디아 안에서는 페미니즘 콘텐츠 생산을 활발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이미 외국에서는 페미니즘이 자본주의와 결합 하고 있지 않느냐, 즉 돈이 되는 페미니즘 하자. 페미니즘의 수요가 많아진 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단으로 구글독스와 텀블벅 후원을 통한 페미니즘 굿즈판매가 있었는데 지난 여성영화제 부스 행사 때 타투스티커 매진으로 얻은 자신감을 더해 페미니즘 이모티콘, 생리 축하 카드 제작 등의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나왔었어요.

다만 이렇게 일회성 후원 굿즈가 아닌 수익성 사업을 계속 해 나간다고 가정 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상업적 영역과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디까지 문화 운동이고 어디까지 사업인지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돈 되는 페미니즘' 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페미디아가 사업체가 된다면 제대로 된 경영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자본주의와 함께 갈 거라면 여성주의 창작자, 생산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떤 성격의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 것 인가가 페미디아의 주요 고민 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지금의 대중문화에 페미니즘의 자본주의적 침투가 바람직한가? 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태주의와 여성

후쿠시마 이후, 한국의 에코페미니즘과 여성²³⁾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멜트 다운, 멜트 쓰루

2015년 3월 19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 2호기의 멜트다운을 확정보도했다. 그동안 온갖 억측으로 멜트다운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일본은 원자로 내부를 탐사한 결과 압력용기 중심부에 핵원료가 없고 멜트 다운으로 녹아내렸으며 땅과 지하수로 흘러나가는 멜트 쓰루가 진행되고 있음을, 원자력 사고 최대위험등급인 7단계를 이미 넘어섰음을 공식인정한 것이다.

2011년 3월 11일부터 이후 15일까지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분명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다. 체르노빌을 뛰어넘어 그 사고의 여파가 더욱 확산될 인류 최대의 재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는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신화에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사회 언론이나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전쟁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었다. 안전한 거실에서 마치 온라인 게임을 관전하듯이 전 세계의 미사일 공격과 실려가는 죽음과 불에 휩싸인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무기들을 쓰기 위해 지구상에 끊임없이 적이 만들어지고 그 적을 위해 삶의 터전과 이유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절망의 표현인 테러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폭파되었다. 그런데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수백년, 수천년간 사라지지 않는다. 사고난 땅에서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바다와 토양, 대기는 끊임없이 오염되고 철저한 언론통제 속에서 일본은 희망을 잃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점점 더 우익화되어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예전 관동대지진 때 그랬던 것처럼 내부의 적

23) 2015년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을 만들어 혐오하고 기민(棄民)이라고 후쿠시마 국민을 버리고 간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원전 관련 수뇌들이 보너스까지 보태서 거액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은퇴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제도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당시 보너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고가 미친 가늠할 수 없는 영향에 비해 보너스라는 말은 화해할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모순처럼 보여졌다. 그렇게 개인들은 제도와 과학기술에 입각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제도를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후쿠시마는 모두가 충격이었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의도적으로 그 충격을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원전업계, 언론은 원자력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이후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세계에서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정책을 선회하였음에도 한국만은 원자력 수출을 축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여전히 묵인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 가장 먼 나라의 일이 된 것이다. 인류가 만든 과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원자력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하면 그것은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 사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과 제로는 다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그 현실적인 증거이다. 인류가 아직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신화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 더구나 현재의 과학기술은 해결하지 못하니, 땅에 일단 묻어두고 후손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성은 과학적 겸손함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30년 동안 쓸 전기를 위해 미래세대에겐 죽음의 핵을 넘겨준 우리 세대는 분명 역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이후, 여성들의 삶

2014년에 후쿠오카의 한 지역사회를 방문하였다. 인구 10만의 이토시마는 절반이 후쿠시마 이후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명인 카메야마 노노코 여성은 ‘100만인의 어머니’ 사진작업을 통해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다. 그녀는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후 6개월 된 쌍둥이를 데리고 후쿠오카로 이주하였다. 아무도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고 아이들에게 현실을 외면하는 자신의 등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한다. 도쿄와 후쿠시마에서도 아이의 삶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였고, 엄마들은 원전이 꼭 필요했던가 자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탈핵을 소망하는 아이와 어머니들’을 사진으로 찍어 ‘100인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펴냈다. 처음엔 원전이 필요없다는 강한 표정을 찍으려했으나 아이와 함께 한 어머니는 부드럽고 빛나는 얼굴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정부가 엄마들을 무서워할 것이라며 유기농업을 하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뛰어 놀리며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100만인의 어머니 선언을 할 무렵 “남편은 현실대응적 관점에서 원전 재가동을 선택했지만, 나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탈핵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원전을 보는 입장이 현실대응적 관점과 미래 세대의 관점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가치관이 현재의 이해와 미래세대의 문제로 여전히 서로 갈등하며 미래세대의 관점은 늘 패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수용하는 현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삶의 전환을 꿈꾸며 기존의 삶의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있다. 여성들은 그 이탈의 중심에 있다. 이와이시마 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원자력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말한다.

‘ 그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편하게 쓰던 전기와 일상, 그것 때문이에요. ’

인구 백 여명의 이와이시마 섬은 30년 동안 원전 반대 시위를 하고 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섬이 유지할 수 있는 돼지 10마리만 길러 그만큼 적게 육식을 하며 도쿄로 표상되는 일본 시스템을 거부하는 삶을 확산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이 줄어드는 세상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누구도 피폭당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존경과 우애가 있는 세상을.
돈으로 명예와 정의를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대립으로 치닫는 힘의 정치를 넘어
돌봄과 배려로 균형을 잡은 상생의 정치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온 세상의 벗들과 함께.

우리는 노래하겠습니다.
대대로 이어질 생명의 노래를.
동틀 녘 햇살같은 희망의 노래를.

우리들은 걷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대대로 지구상에 살아갈 아이들을.
우리의 사랑스런 지구를.

<100만인의 어머니> 선언

후쿠시마 이후 여성들의 변화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에도 여성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역사 속에 묻혔던 체르노빌이 왜 수십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는지 다시 관

심을 갖게 되었고 원자력에 얽힌 진실들을 알게 되었다. 원전 관련한 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후쿠시마 주민을 초청하는 강연회와 그들을 돕는 길을 모색하는 모임도 열렸다. 녹색당이 다시 조직을 시작했고 방사능에 대해 감시하는 여성모임과 노후원전을 폐쇄하자는 운동과 지속적인 방사능 감시를 요구하는 조직, 밀양을 중심으로 원자력과 전력 산업의 폭력성을 깨달은 시민행동과 연대도 이어졌다. 체르노빌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사고와 후쿠시마를 떠나지 못해 주변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방사능의 줄어들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 해가 지날수록 새로운 진실을 접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엄마라는 모성정체성에서 후쿠시마 이후 생명과 미래세대의 사회적 모성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단순히 모성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와 조직적 행동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뚜렷한 사회현상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풀뿌리여성들의 탈핵운동, YWCA, 소비자생협 및 밀양의 송전탑반대 활동 등이다.

첫째, 차일드 세이프, 성대골마을 등의 풀뿌리에서의 탈핵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성대골마을은 성대골에서 마을도서관을 만든 여성들의 풀뿌리모임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성대골마을은 도시가 전기를 절약하지 않고서는 원전 정책을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에너지절전소를 만들어 에너지 절약 교육을 하고 마을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사용을 줄이고 갯돈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독일로 재생가능에너지 연수를 다녀오고 마을에 에너지 절약 물품과 교육을 하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차일드 세이프는 2011년 6월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며 직접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만든 온라인 모임이다. 여성들은 무조건 안심하라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여 도로와 식품 등의 방사능오염을 측정하고 직접 공부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만든 것이다. 그해 11월 휴대용 계측기로 노원구의 주택가에서 서울시 평균 선량의 최대 20배가 초과되는 도로를 발견하였다. 지금 한국은 후쿠시마 이후 일본으로부터 486만톤의 폐자재와 425만톤의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어 기업을 통해 폐자재를 건축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는 즉각 문제의 아스팔트를 철거하였고 이후 탈핵 에너지 전환 자치단체장 모임을 주도하고 태양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2만 2천 여명의 이르는 온라인 회원이나 성대골 마을의 여성들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생협 등과 함께 방사능정밀 측정기를 구입해 수산물 등의 방사능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급식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을 제외하자는 방사능없는 급식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다. 내 아이가 숨 쉬는 공기와 매 끼니 먹는 음식과 물에서 더 나아가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원자력밀집도의 한국 자체가 시한폭탄임을 알게 되면서 평범한 주부였던 여성들이 최근에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역시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났고 생명과 안전이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을 달구었던 십대 소녀부터 온갖 온라인 모임의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광장을 나와 조직되지 않은 채 흩어졌다면 탈핵은 여성들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YWCA의 탈핵운동 역시 여성운동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백년의 기독교운동 역사를 갖고 있는 YWCA는 시민운동 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진 않다.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전국의 지부조직이 탈핵을 조직의 핵심운동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치열한 내부 준비과정을 거쳤다.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둔 여성개발과 인권보호를 주력으로 한 보수적 여성운동흐름에서 탈핵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운동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운동일 수도 있었지만 종교적 생명과 신앙의 논리상 공감하기 쉬운 운동이기도 하다. 3년여의 노력을 거쳐 탈핵을 운동 목표로 결정하였고 전국의 모든 리더십 과정에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명동의 사무실 앞에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탈핵 집회를 진행하였다.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에는 불과 며칠 만에 전국에서 10만인 서명을 받기도 할 정도로 여성들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탈핵의 어느 현장에도 YWCA의 실무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이고 YWCA는 탈핵을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여성대중운동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소비자생협을 들 수 있다. I-COOP생협, 한 살림,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등은 조합원의 대다수가 여성들이다. 한국 생협들은 80년대 후반부터 땅이 살아야 밥상이 살고 생명이 온전하다는 생각으로 유기농과 농업생산자와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생협에서 먹거리교육과 지역사회 기여와 참여 등 생협의 성장과 발전 속에는 여성조합원들의 헌신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때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소비자운동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생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성 리더십의 부재, 유통비용의 증가로 인해 직거래의 취지가 희석화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곤 했지만 아직 생협은 여성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중요한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다. 생협의 여성조합원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에서부터 노

후 원전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까지 목소리를 내며 환경단체들과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풀뿌리 리더십에 여성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조직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밀양 할머니들의 끈질긴 싸움이다. 밀양은 십년 넘게 고립된 섬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송전탑이 단순히 삶의 근거지를 찢고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밀양 할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2012년 이치우 선생의 분신 이후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모성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밀양은 한국 사회의 여성주의를 관통하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여성주의가 단지 남녀 개인의 차별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경제와 생명, 서울과 지방, 권력과 힘없음, 공권력과 풀뿌리 이 모든 위계의 가장 낮은 지점에 밀양의 힘없고 늙은 할머니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적 여성주의가 밀양의 765KV 고압 송전탑 아래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청년여성주의자들이 밀양으로 내려가 할머니들과 함께 했다. 도시적 삶의 희망 없음과 도시에 자신의 몸 하나 놓힐 곳 없는 청년들이 귀농과 귀촌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현장여성주의의 새로운 학교로 밀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할매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경험과 어떤 마음들... 그래서 항상 밥을 챙기시는 모습이며 경찰들에게 밥 먹었냐고 하시는 모습... 노년의 나이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계속 의미화하면서 국가에 저항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부당함에 저항한다, 이런 것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어요.’²⁴⁾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던 시골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과 관계하려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고 소외된 노인들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을 끌어안고 투쟁하는 여성주의자이자 경찰 조차 자식으로 여겨 밥 걱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힘이 센 할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할머니들과의 연대감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여성환경연대 등에서 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본격적인 담론 작업의 시작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이후 여성환경연대는 시민운동이 영역별로 분화되어 전

24) NGA웹진 밀양과 나

체적인 미래 사회와 운동에 대한 담론 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2013년에는 여성들의 유쾌한 사회 상상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한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열었다. 동시에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는 ‘한국적 에코페미니즘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어 에코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방식과 이론작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에코페미니즘은 개인적 변화를 전제로 풀뿌리 단위의 조직화와 사회의 변화, 전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이후의 모성

세월호는 후쿠시마 이후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는 자본의 논리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통보였다. 온 국민이 가라앉은 세월호를 보았고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았으며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가슴에 묻으며 일 년을 보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수많은 어머니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는 세월호는 교통사고 일뿐이며 유가족이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며 단식투쟁을 하는 가족들 앞에서 폭식을 하는 일베나 유가족에게 항의하는 국가의 대리인인 모성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을 느낀 모성도 적지 않았다.

‘저는 세월호 이후 지역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의 삶과 이웃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환경연대의 회원인 40대의 한 여성은 느리더라도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자신을 바꾼 사건은 세월호 였다고 말한다. 아이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어떤 고통인지 공감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4억의 보상금 따위가 수치스럽기만 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느껴질지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아이를 낳고 기른 적이 없는 여성들조차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그것이 여성들의 생명감수성이고 인간성의 기본적 요소이다.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말할 때의 엄마는 결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반

드시 여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여성이 해왔던 역할,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과 살림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결혼한 여성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의 역할을 계속 엄마가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생명과 보살핌을 부차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성장과 개발 위주의 남성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는 자각이다. 아이를 자본의 경쟁과 이윤추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우선한 엄마의 논리가 이기지 않고서 적당한 타협이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자본주의적 성공의 욕망과 상품의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내 아이를 경쟁에서 우위에 있게 하고픈 이기적 모성을 뚫고 새로운 윤리와 책임을 가진 다른 모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그런 자각이 담긴 울부짖음이었다. 그것이 후쿠시마와 세월호라는 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에코페미니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사회는 이미 도시화율이 91%에 이르는 도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의 화두이지만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에 간혀있다. 그리고 남성으로 상징되고 과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자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기술로는 최대한 안전하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후세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 어디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갖지 않은 인류의 대답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사회는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임기나 책임이 끝나면 제도에서 물러나 책임질 수 없거나 책임지지 않는 개인이 되는 사회에서 한 사회를 과멸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와 관리수준은 너무도 허술하게 짜여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사고는 어디나 있을 수 있다. 국가가 그 모든 일에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 그건 교통사고일 뿐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 역시 부정하는 이 자포자기의 논리가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고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개인이 각자 삶의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과정도 방법도 민주적이지 않고 생명과 삶이라는 기본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세 끼 밥과 잠과 휴식과 놀이, 따뜻한 보살핌과 인간적 규모의 공간 등의 살림살이가 자본의 이윤에 의해 상품이 되고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끊임없이 개인들을 경쟁시키고 삶의 연대를 파괴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여성환경연대, YWCA 등의 단체와 시민운동 내에서,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대안적 이론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구의 역사와는 다른 형태로 자연파괴와 위계적 가부장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여러 지점에서 대안적 운동과 실천을 찾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에서 여성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에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실천에서부터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저항을 아우르는 실천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은 ‘삶의 자급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데서 생기곤 한다. 한국사회에서 에코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텃밭에서 직접 먹을거리를 거두고 유기농 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입고 소비를 최소화하고 대안교육과 적정기술, 소규모의 마을공동체를 떠올린다. 거대한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나 현대과학의 발전 등을 거부하는 과거로의 회귀로 비쳐지곤 하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측면이 있는데 간디의 물레처럼 현대과학을 거부하고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수많은 논쟁과 고민 속에서 풀어가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개인과 풀뿌리의 작은 변화들을 외면한 채 법과 제도의 변화, 국가와 정치의 변화에만 몰두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기울어진 한 축을 복원해야 할 때이다. 이반 일리히가 말한 것처럼 병원이 병을 만들고, 학교가 생김으로 교육이 사라지고, 가장 인간적 교통의 속도는 자전거이듯이 지금 인류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20세기의 전쟁과 과학의 정점에 있었던 핵발전이 인류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녹색혁명은 제 3세계의 기아를 해결하지 못했고 생명공학과 GMO는 인류의 적이 되고 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과학과 기술이 때론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성의 눈으로 다시 짚아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자급적 관점에서 도구화되고 상품화된 삶을 다시 복

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까.

거대자본에 맞서 싸우거나 국가의 개발주의에 저항을 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외국의 사례만 거론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에 새로운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전 세대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젊은 에코페미니스트들과 풀뿌리여성, 밀양의 할머니들 까지... 신자유주의와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삶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아래로부터의 전환,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인간적 규모의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 여성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 그것이 한국사회의 뜨거운 과제가 될 것이다.

생태주의와 여성

폭력과 혐오 그 이후, 지속가능한 페미니즘 상상하기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페미니즘의 딜레마

우리는 항상 모순가득한 일상과 삶의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만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고, 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도시에 남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의 곁을 떠나고 싶지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딜레마도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성매매를 할 때가 혹은 매 맞는 아내로 살 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덜 열악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생활일지라도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 성매매를 그만둔다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페미니즘은 어떠한 삶의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은 젠더정의를 위한 수많은 이론적 실천적 투쟁의 장을 만들고 여성, 소수자의 삶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내어왔다. 폭력과 혐오에 맞서 온 수많은 페미니즘의 언어들은 생존전략이면서도 해방구였다. 그러나 뜨거웠던 쟁취의 순간 그 이후, 여전히 삶이 지속되는 현실 세계는 언제나 녹록치가 않다. 페미니즘의 법제도화와 국가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대안이 필요하다.

10년 뒤, 20년 뒤의 페미니즘 상상하기

여성이 폭력을 벗어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은 종결되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어떠한 말 걸기를 할 수 있는가? 나의 10년 뒤 페미니즘, 20년 뒤 페미니즘은 어떤 것일까? 피해자 담론을 넘어서, 한계가 많은 법 제도의 프레임을 넘어서, 다중적으로 교차되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페미니즘으로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가부장제 아래 여성들에게만 부과되어 왔던 가사노동, 돌봄과 같은 재생산 노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몇몇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들이 집과 부엌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

했다. 집과 부역을 떠난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길 고대했다. 그러나 자본 중심의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젠더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매여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페미니즘의 목표가 과도하게 일을 하고 GMO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겨우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닌 삶, 더 많이 일해서 조금 더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삶,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소비와 노동을 다르게 하고 덜 하면서도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장중독을 넘어서 젠더정의와 생태정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중국에서 흘러온 황사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고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방사능 먹거리와 미국에서 생산된 GMO를 먹는다. 재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 식량안보의 위기, 빈부 격차와 인간 소외는 인류 공동의 위기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위해서 우리는 젠더정의와 생태정의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에 에코페미니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폐 가치로만 측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올라타고 가야하는 성장의 사다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화폐 가치로만 측정되는 GDP(국내총생산)는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GDP는 우리가 가진 삶의 문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식수, 오염되지 않은 공기, 햇빛과 충분한 공간, 쾌적한 주거환경, 세대를 거쳐 지켜온 문화, 씨앗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한 번의 스키 경기를 위해 500년이 넘는 숲의 나무를 자르면 GDP는 올라간다. 나무를 자르면서 발생한 비용과, 숲을 헤치고 스키장을 짓는 건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발전주의, 계급, 화폐 경제 등 불평등을 유지시켜온 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에코페미니즘과 전환(Transition)

에코페미니즘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논의의 흐름이 존재한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여성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모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논

의는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성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젠더화된 노동과 성역할을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한다²⁵⁾.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자연이라는 가치를 전복하고 돌봄노동을 집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결국,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다른 경제’의 새 판이 짜여져야 한다. 그것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더 많이 비주류 경제판을 넓혀야 한다. 그 새 판에 더 많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즘의 영토를 넓히는 전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모색하는 것, 더 많은 돈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한 실험과 실천의 공간을 확장하는 페미니즘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25) 더 많은 논의는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을 참고.

퀴어 페미니즘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²⁶⁾ 성소수자인권운동-여성운동의 연합 정치를 위하여

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지난 3월, <3.8 세계 여성의 날> 주간을 겸하여 미국 뉴욕에서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열릴 예정이었다. 때마침(?) 안식월을 얻어 미국에 가게 된 성소수자인권활동가가 있어, 딱 본 김에 제사지내자, 성평등 규범에 한국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한 활동가의 안식월을 ‘해외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3.8여성의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무지개농성단>에 대한 “성평등디딤돌상” 시상식이 있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6일간 시청 점거 투쟁을 벌인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성평등’으로 불러낸 현장이었다.

성소수자인권을 ‘성평등’으로 불러내는 이 시도들은 중요한 현장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이 천착해왔던 ‘여성’ 범주와 여성 간의 차이 문제, 한국여성운동사에서는 ‘영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성정치’로 쓰여진 정치 작용이 촉발한 질문을 새로운 시점에서 환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성’ 또는 ‘성’(sex/gender/sexuality)으로 뭉뚱그려진 그림 속에서 성소수자-퀴어들을 다시 불러낸 것이다.

26) 이 글은 인권오름 제433호(2015년 4월)에 실렸으며,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에서 개최한 토론회 “그 페미니스트 참 퀴어하다!”에서 발표한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 젠더를 퀴어로, 퀴어를 젠더로 가로지르는 페미니즘, 언니네트워킹을 돌아본다”(미간행)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퀴어링 젠더 Queering gender : 레즈비언, 여성 간의 차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성별·성차를 의미하는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국내외 성평등이 제도화된 영역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와 다르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법을 흔들어 왔던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페미니즘-퀴어담론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여성을 퀴어로 가로지르는 정치적 기획의 시작은 1990년대부터 주로 여성운동계라는 영역 안과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운동사에서 ‘영페미니스트’, ‘성정치’, ‘레즈비언 페미니즘’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는 이 정치작용은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언니네/언니네트워크, 대학 내 총여학생회와 같은 여성자치단위와 성소수자인권모임, 여성학(등) 연구 집단을 실제로 하여 페미니즘과 퀴어,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의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서구의 페미니즘 사상사 계보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비동시적인 것 또는 세대적인 것으로 나뉘는 제1, 제2, 제3물결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퀴어이론을 거의 동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접하면서 호주제, 성폭력, 노동, 가족 등 여성운동 의제에 참여하면서도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여성 간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주체들이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도 만만찮다. 한채윤(2011)은 PC통신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PC통신은 레즈비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해방구였다. 특히 페미니스트 모임에서 생산되는 레즈비언리즘, 성정치, 퀴어이론 등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도 전달되어 공유/학습되는 효과도 있었으며 “오히려 레즈비언 모임이 아니라면 몰랐을 이론과 논쟁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정치는, 현재 ‘죽어있다’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분란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의 제도화 성과는 어떤 페미니즘이 다양한 소수 여성을 배제해온 역사로도 의미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배제는,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내기 좋은, 많은 청자들을 분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보수적 반격 속에서는 여러 갈래의 ‘페미니즘들’ 역시 드러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양성평등’이 걸림돌이 될 줄이야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출발했다. 그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성평등부)에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을지언정, 한 번도 Gender Equality라는 명칭이 빠진 적은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맞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미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정책책임관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바뀌었다. (여성신문 2015.3.22) 성평등의 제도화는 ‘여성’이라는 차별 지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젠더를 ‘여성’으로 쓰고 읽는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된 선명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왜 양성평등인가? 이 속에서 ‘평등’은 왜 필연적으로 ‘양성’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가?

1999년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판결,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호주제 위헌 결정 등 성평등의 제도화 성과와 동시에 여성, 여성부, 여성운동, 페미니즘은 역차별, ‘된장녀’, ‘보슬아치’로 역풍을 맞이하였다. 여성부는 탄생과 동시에 폐지논란에 휩싸여왔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주장했던 <(구)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보다 한 발 앞서 명칭변경을 했는데, 2014년 조국·가족·균형을 모토로 <양성평등연대>가 설립되었고 그 정관에 ‘남녀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을 앞두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소름 돋는 짝춤이다.

단순히 같은 문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넘어선다. <양성평등연대>가 일방적으로 페미니즘의 언어를 전유했다고만 볼 수 없다.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시기에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을 바탕으로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편입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2005년 폐지되었다. 혼인, 친족, 양육, 노동의 재편을 원했던 ‘여성’의 투쟁은 그 제도화 성과와 함께 이성애적 공동체로 설정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몰두할 것을 약속받는 듯한 명령을 끌어안았다. 이주여성, 미혼모 등 다양한 여성들의 삶 역시 여성의 출산과 돌봄 책임이라는 배경에서 떠오르는 정도로만 다뤄져 왔다.

또한, 헌법 제36조1항은 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유일하게 ‘양성평등’을 기입한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성과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성평등의 명문화는 훗날 호주제 위헌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이 조항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집단은 가족 가치를 수호하려는 보수기독교계이다. 간통죄 폐지에 반하여, 동성애에 반하여.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2차 세미나>의 제목은 이러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적 가족’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은 혼인과 같은 ‘짝짓기 평등’으로 등장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새로운 시점에서의 퀴어링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2014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이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자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가족’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안> 역시 유사한 맥락에 있다.

성평등이 ‘짝짓기 평등’의 함정에 빠진 것은 ‘섹스, 젠더=남녀’라는 오직 두 가지 계열에 대한 몰두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역사 역시 여기에 기여했으며, 바로 이를 문제화하면서 퀴어링이 촉발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의 모색은 남녀라는 두 가지 계열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짝짓기 평등’에 대한 일종의 퀴어링을 시도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Gendering queer, 퀴어를 젠더로 가르기

퀴어를 젠더로, 분명하게는 ‘두 개로’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남녀 간의 차이, 남성성/여성성이라는 경계는 성소수자의 삶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 권력에 주목하는 것(예. ‘레즈비언 평균 소득이 게이보다 현저히 낮다’)과 성차가 비대칭적인 독특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권력의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레즈비언보다 게이가 권력이 있다’는 단순한 결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그 관계가 악화되는 정도는 레즈비언보다 게이, 트랜스젠더남성(FTM)보다 트랜스젠더여성(MTF)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가족 내에서 ‘아들’로 인지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남성성과 권력의 상실이 더 비극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부장적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가 성소수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페미니스트 분석은 성소수자의 삶과 운동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성소수자가 항상 정체성 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비대칭적 독특성’이란, 하나의 분석틀(예를 들어, 소득수준)을 가지고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마다 각각 다른 분석틀(차이화된 분석틀)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살펴보면, 출생 시 성별이 여성인 응답자가 수적으로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젠더퀴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여성 간의 차이와 범주에 대한 논쟁이 페미니즘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촉발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게이 커뮤니티에 비해 내부 지형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표현 하나를 쓸 때도 그 여성이란 범주에 MTF(Male to Female) 및 FTM(Female To Male)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지, 이렇게 굳이 나누어야 하는지, 대체 여성이란 누구인지 등 매우 복잡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 한채윤(2011),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진보평론 제49호 수록

성소수자운동의 발전과 성평등의 연합 정치를 위하여

앞서 다룬 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더하려고 한다.

첫째, 운동의 현장으로서 성소수자 당사자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르게 포착해보는 것이다. 하나의 제안으로서, 여성퀴어 또는 LBT(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에서 게이Gay를 생략한 것)운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에서 LBT운동은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토양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과는 다른 이슈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또는 게이운동과의 결별이라는 의미에서 분리되기도 한다. 다른 예로, 이슬람문화권인 인도네시아의 한 LBT단체는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성소수자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비를 막아주는)우산으로서의 여성운동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

레즈비언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을 퀴어링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레즈비언을 상징하는 경향 또한 없지 않았다. 여성성소수자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퀴어링을 보다 역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레즈비언이 ‘여성’에게 일으켰던 분란과 마찬가지로 퀴어링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성소수자를 인지하려는 ‘여성운동계’에 청자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은 모두 차별과 평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발자취 또한 다르다. 인권운동의 프레임으로서 성소수자운동은 ‘반차별’을 통해 나쁜 관습을 철폐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여성운동의 프레임으로서 성소수자운동은 민주화/시민권의 측면에서 또 다른 토양이 될 수 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한국 성소수자를 초대할 적은 없지만 무지개행동이 현지에서 참여하기로 한 것은 성평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LGBT 또는 LBT 틀에서 네트워킹과 호소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앞에서 언급했듯 성평등의 제도화 성과 중에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곳에서의 분란(내파)이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려는 여성운동의 움직임도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로 삼는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반대하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며 오히려 제대로 문제 삼으면서 계속 물고 늘어져서 대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퀴어링 젠더, 젠더링 퀴어”의 분란이 정치적 기획으로서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이 글은 서두에서 말했던 3.8 여성의 날의 두 현장을, 여성운동-성소수자운동의 역사와 미래 사이의 어딘가에 한 점으로 남기고자 하는 바람으로 쓰여 졌다.

[참고자료]

- 한채운(2011),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진보평론 2011년 가을(제49호)
 여성주의저널 일다, “이성커플에 기반한 ‘양성평등’의 한계”, 2009-08-13
 여성신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바뀌나”, 2015.3.23

부 록

- 분과별 참가자 명단
 - 참가자 명단

[부록]

분과별 참가자 명단

1분과 젠더폭력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권명심	문화기획달 행동지기
2	권은화	안양YWCA 팀장
3	김경혜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4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5	김수현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팀 과장
6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7	김진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8	김하영	페미디아 활동위원
9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
10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11	남승현	이대 여성학과
12	바람	이화여대
13	박슬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14	박이경수	여성인권티움 사무국장
15	박찬미	
16	서정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팀원
17	손미선	(사)인천여성의전화
18	송규란	청주여성의전화 활동가
19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20	신현자	정의당 부천소사지역위원장
21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22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23	이은숙	안양YWCA 청소년성문화센터장
24	이해리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팀 팀장
25	제현주	협동조합 롤링다이스
26	조미영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27	지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28	최선헌	한국여성의전화
29	최은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팀원
30	최진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팀장

2분과 여성노동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	김다민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
3	김미현	불꽃페미액션
4	김서운	불꽃페미액션
5	김현미	연세대학교
6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7	모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8	박교연	이화여대(졸)
9	박사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	박임성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팀장
11	박주경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12	서나래	부산페미니네트워크/알바노조·부산지부 사무국장/노동당
13	안미애	현대차지부 대의원
14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16	안장희	안양YWCA여성인력개발센터
17	오은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미조직여성국장
18	용윤신	불꽃페미액션
19	이가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0	이경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1	이영애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22	이진숙	충남도인권위 부위원장
23	임혜숙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24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 위원장
25	정유정	한국여성재단기획홍보팀 차장
26	정진희	화섬노조 케이티세라믹지회
27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8	조선희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
29	조윤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30	조지영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선전국장
31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32	한미정	안양YWCA여성인력개발센터
33	홍승민	페미당당 당원

3분과 여성정치세력화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곽빛나	녹색당
2	김내은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과장
3	김명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4	김민정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사무국장
5	김예지	페미당당
6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7	김현	
8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9	민보경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10	방혜린	강남역 10 번출구 관리자
11	백진영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과장
12	신화용	페미당당 마스크트
13	심미섭	페미당당
14	안임숙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15	용가리	한국여성민우회
16	우지안	페미당당
17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회장
18	이규숙	안양 YWCA 팀장
19	이소현	부평구의회 의원
20	이지원	강남역 10 번출구
21	이행찬	천안정서발달지원센터 '씨앗' 대표
22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센터장
23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4	조미환	너머서 회원
25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26	진달래	페미디아 비대위원
27	최연숙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 도회장
28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9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4분과 여성주의 문화운동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고자연	문화기획달 그림지기
2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3	김진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지원팀 대리
4	김하린	불꽃페미액션
5	김현경	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 멤버
6	노경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7	달리	문화기획달 대표
8	박금희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9	박동순	안양 YWCA 사무총장
10	박민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1	박신영	여성인권티움
12	박현숙	안양 YWCA 꿈이있는집 소장
13	손미영	경남여성회
14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무국장
16	안경선	부천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17	양지혜	강남역 10 번출구
18	위창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19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20	유희선	페미디아
21	윤금이	아산시
22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23	이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4	이유미	협동조합롤링다이스
25	전미옥	너머서
26	전유나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
27	정예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8	정재현	연세대학교
29	조이현임	동네친구 대표
30	최은주	하자센터 미디어팀
31	홍지연	롤링다이스

5분과 생태주의와 여성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김도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2	김문자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3	김미정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4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
5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6	김정희	가배울 공동대표
7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나무 센터장
8	손희정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9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이사장
10	윤정숙	여성환경연대
11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12	정홍미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13	정희진	여성학 강사
14	조수빈	서울혁신센터
15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16	천정윤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팀장

6분과 퀴어 페미니즘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가온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2	공미혜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3	김민진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4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5	난새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6	박보람	페미디아
7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재단
8	손은진	경남여성회 활동가
9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0	이송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
11	장지유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12	정세연	
13	정현희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14	황미정	경남여성회 활동가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정리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가온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2	고자연	문화기획달 그림지기
3	공미혜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4	곽빛나	녹색당
5	권명심	문화기획달 행동지기
6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7	권은화	안양 YWCA 팀장
8	김경혜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9	김다민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
10	김도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11	김명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2	김문자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13	김미정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14	김미현	불꽃페미액션
15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6	김민영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협력팀장
17	김민정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사무국장
18	김민진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19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
20	김서윤	불꽃페미액션
21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22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23	김예지	페미당당
24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25	김정희	가배울 공동대표
26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7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28	김진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9	김진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지원팀 대리
30	김하린	불꽃페미액션
31	김하영	페미디아 활동위원
32	김현	
33	김현경	문화기획집단 영화야놀자 멤버

34	김현미	연세대학교
35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
36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37	난새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38	남승현	이대 여성학과
39	노경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40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41	달리	문화기획달 대표
42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43	모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44	바람	이화여대
45	박교연	이화여대(졸)
46	박동순	안양 YWCA 사무총장
47	박민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48	박보람	페미디아
49	박사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0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재단
51	박슬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52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나무 센터장
53	박신영	여성인권티움
54	박이경수	여성인권티움 사무국장
55	박임성아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팀장
56	박주경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57	박찬미	
58	박현숙	안양 YWCA 꿈이있는집 소장
59	방혜린	강남역 10 번 출구 관리자
60	서나래	부산페미네트워크 / 알바노조·부산지부 사무국장 / 노동당
61	서정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팀원
62	손미선	(사)인천여성의전화
63	손미영	경남여성회
64	손은진	경남여성회 활동가
65	손희정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66	송규란	청주여성의전화 활동가
67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68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69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무국장
70	신현자	정의당 부천소사지역위원장
71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72	신화용	페미당당 마스코트
73	심미섭	페미당당
74	안경선	부천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75	안미애	현대차지부 대의원
76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77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회장
78	안임숙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79	안장희	안양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80	양지혜	강남역 10 번출구
81	오은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미조직여성국장
82	용가리	한국여성민우회
83	용윤신	불꽃페미액션
84	우지안	페미당당
85	위창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86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이사장
87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88	유희선	페미디아
89	윤금이	아산시
90	윤정숙	여성환경연대
91	이가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92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회장
93	이경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94	이규숙	안양 YWCA 팀장
95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96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97	이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98	이세아	여성신문 기자
99	이소현	부평구의회 의원
100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101	이송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
102	이영애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103	이유미	협동조합롤링다이스

104	이은숙	안양 YWCA 청소년성문화센터장
105	이지원	강남역 10 번출구
106	이진숙	충남도인권위 부위원장
107	이행찬	천안정서발달지원센터 '씨앗' 대표
108	임혜숙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09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 위원장
110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111	장지유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112	전미옥	너머서
113	전유나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
114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15	정세연	
116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17	정예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118	정재현	연세대학교
119	정진희	화섬노조 케이티세라믹지회
120	정현희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121	정희진	여성학 강사
122	제현주	협동조합 물렁다이스
123	조미영	안양 YWCA 가정폭력상담소
124	조미환	너머서 회원
125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126	조선희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
127	조수빈	서울혁신센터
128	조윤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29	조이현임	동네친구 대표
130	조지영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선전국장
131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132	조형	미래포럼 이사장
133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134	지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135	진달래	페미디아 비대위원
136	최선희	한국여성의전화
137	최연숙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 도회장
138	최은주	하자센터 미디어팀

139	최은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팀원
140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41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142	최진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팀장
143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144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45	한미정	안양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146	홍승민	페미당당 당원
147	홍지연	롤링다이스
148	황미정	경남여성회 활동가
149	Isabella Steger	Quartz reporter and editor
한국 여성 재단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천정윤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팀장
	하영선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과장
	박금희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정유정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백진영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과장
	김내은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과장
	이해리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팀장
	김수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정홍미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민보경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센터장
	홍미희	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 팀장(실무)
	구현주	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 대리(실무)

※ 본 명단은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9시까지 확인된 명단입니다.

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I 사업소개



1999년 사회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은 나눔문화 확산과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공익재단으로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 여성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만들기에 기부하세요.

농협 1279-01-000251 국민 079801-04-001536 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 MEMO

■ MEMO

■ MEMO

